

“3·1운동처럼…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해 일어나자”

세이브코리아, 서울 여의도서

3·1절 대규모 집회



세이브코리아 3·1절 특별 국가비상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이브코리아



메시지를 전하는 손현보 목사. ©뉴시스



기도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다. ©뉴시스

삼일절을 맞아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기도회)가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개최됐다. 비가 오는 낮은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 주최 측 추산 약 25만 명, 경찰 측 추산 약 5만 5천 명이 참석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수호해야”

1부 예배는 행사 준비위원회 흥호수 목사의 인도로, 먼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회칠한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손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의 행보를 볼 때, 독재국가와 전제주의 국가로 가는 암울한 길을 걸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더 이상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마지막 선에서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하틀러를 막지 못했던 독일, 자국의 국민을 죽인 캄보디아의 폴

포트, 자유를 빼앗긴 홍콩을 보라.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서 외치며 항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보라. 이것이 국가 기관인가.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사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현재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선관위 또한 부정 채용의 의혹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맞는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현재가 끝까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탄핵을 인용한다면 결단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좌우파, 지역과 세대의 문제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못 지키느냐하는 체제의 문제이다. 후대에게 결코 자유가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책읽는사자의 기도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 CPACC(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한국의 탄핵과 정세에 대한 연설로 눈길을 끌었던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민주주의,

연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기는 애국시민 일동은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부여하신 양도하거나 구속할 수 없는 인간 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있음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왕이나 정부로부터 그러한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소유를 보호하려는 대단한 선언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언제나 이 천부적이며 자연법적인 권리들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법치와 정의의 아이콘이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500년을 가는 역사이자 전통이다. 국민들이여 나와 함께 싸워보지 않겠는가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이 계엄령이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행정부계도 10대와 2030세대가 일어났고, 4050세대가 깨어났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들을

그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기도로 시작된 국회가 이제는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다. 계엄령 주요 주제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다.

◆“3·1운동 정신 이어받아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다음으로 ‘1당 독재의 국가비국을 넘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탄핵 사태를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이를 척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자유대한민국을 용기 있게 지켜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 있는 대통령이다. 한일 관계를 풀고,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절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디서울특별시의회 김혜지 시

의원이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멸공”△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적 불공정성”△대통령특사

장성민 전의원이 “위대한 자유 위대한 한

미동맹 위대한 대한민국”△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옥중편지’△대통령 변호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의 현 위기 극복방안”△두레마을 김진홍 목사 등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법치와 정의의 아이콘이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500년을 가는 역사이자 전통이다. 민심을 이길 현재는 없다. 대통령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전하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홍 목사는 “3·1 만세운동은 세 가지 정신이 있었다. 자주독립정신, 평화정신, 저항정신이 바로 그것”이라며 “세이브코리아 운동은 106년 전 있었던 3·1 만세 운동의 세 가지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정신이다. 비를 맞으며 함께 성장을 드리는 우리들이 3·1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 반드시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3·1운동 정신 이어받아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다음으로 1당 독재의 국가비국을 넘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으로

“탄핵 사태를 통해 알게 된,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이를 척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자유대한민국을 용기 있게 지켜낼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 있는 대통령이다. 한일 관계를 풀고,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절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반대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적 결단이

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가며 계몽령이 된 것 아니겠는가”라며 “우리의 주장

이 헛되지 않는 것은 대학생들의 사국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강사는 “무려 40개 이상의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고, 전국교수모임 6,300명의 대학교수들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모인 것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직무복귀 이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함”이라며 “현재 이 나라는 심각한 위기 상태이다. 민주당이 현재 압법과 사법과 선관위와 공수처를 장악했는데,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

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보를 볼 때, 집권하게 되면 독일 하틀러를 불러올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시 제2의 중국과 홍콩처럼 모든 종교의 자유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전체·공산주의로 전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진중화 되어 공산화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며 “군사적 전쟁이 아닌 정치사회교육사상 등을 통해 국가를 점령하려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홍콩”이라고 했다.

전 강사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사회, 국방과 외교는 절저한 한미동맹을 통해 강국이 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정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도회 이후엔 참가자들이 국회 주위 여의도로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한편, 세이브코리아는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도회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관련기사10면 장요한 기자

서울 7호선 바로 앞 초역세권 파격가 분양!
3.3m² 천만원대 단지내 상가!

(계약면적 평균 기준/부가세 별도)

Elgar
모아 엘가

초역세권 랜드마크 신상권!

계약금
1,000만원(1차)

천왕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스트리트형 상가
7호선 천왕역 바로 앞 수익을 만드는 가치



10년전 분양가 일23,000명 유동인구 특급상권!

주변 8,000세대 대로변 단지내상가! 권장업종 강추!!!
편의점/부동산/커피숍/제과점/병원/학원/프랜차이즈점 등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비 단지내 상가 선착순분양 PREMIUM 6

천왕역 초역세권 고정 배후수요 多 랜드마크 상가
도보/차량이용 상가 이용 편리, 고가/매출확보 유리

초역세권 넓고 편리한 자주식 주차
천왕역 유통 일평균 23,000여명, 8,000여세대 주거배후

10년전 분양가, 거점을 뺀 실속형 상가
합리적 분양가, 안정적인 수익 단지내 상가

신 주거운영 선점 상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지 최종남북 선점, 미래가치 상승의 비전

대로변 전면 5M~14M 이상 노출 (0.4% 이상 호수)
넓은 전면 확보, 높은 광고효과, 다양한 연출 가능

대형 생활용품점 입점 예정 상권 가치
국내 유형 생활용품점 입점 예정 상권 가치

천왕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스트리트형 상가
천왕역 모아엘가 트레비

사행사: 주식회사 이래에이치엔씨
시행사: 모아야주택사업
신지사: 코리아신식 주식회사

분양 문의 02-6951-4226

총호수는 선착순으로 지정됩니다!

한기총 “카르텔 집단 된 선관위, 전면 개혁하라”

감사원,
선관위 감사 결과에 대해 성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
가 최근 “카르텔 집단
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전면 개혁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감사원이 선거 관리위원회의 878건의 채용 비리를 밝힌 가운데, 현법재판소는 오히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선관위를 외부 기관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며 “심지어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기관이니 법령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면서 불법편법 채용을 부추겨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 및 조사 결과 드러난 채용 비리 사례들은 선관위가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부패한 행태를 보였음을 증명한다”며 “친인척 및 지인들을 부정하게 채용하고,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 기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점

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 여부는 선거의 공정성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이 관련 법령도 무시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시지하는 등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시도를 했다면, 어떻게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카르텔이 되어버린 선관위 집단을 전면 개혁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것과 같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처분하여 부패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나아가 현재가 입법을 통해서 감사원법에 선관위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힌 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도 막으며 성역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기총은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기총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며 “그 어떤 부정과 비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강력히 촉구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언론회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현재는 감싸기 급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사진), 이하 언론회)가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현재는 감싸기 급급”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나온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선관위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 시험위

원을 구성하여 직원의 자녀들 면접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규정 위반을 하면서 근무 시간을 봐주고, 그야말로 세습과 봐주기와 서로가 나눠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니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는 방법도 썼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했다니, 이 기관은 썩을 대로 썩은 미피아 집단”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에 모든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들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 ‘가족회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하여, 현재가 판결하기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싸기를 하고, 강하게 쪼개기까지 박았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선관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울타리를 쳐 주었다”며 “현재나 선관위 고위직은 모두 판사들이 차지하는데, 이번에 현재에 의한 선관위 판결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

선관위 업무가 아닌 직원 채용과 같은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선관위가 한 두 번도 아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누구도 그 비리를 밝혀 막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에서 녹(祿)을 먹는 공직자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속히 국회는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조직적, 은폐적, 암흑적 부정을 명명백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실력 있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할, 국가기관의 자리에 세습하는 가족으로 채우는 음성적 범죄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 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환골탈태(換骨脫胎)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LX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LX Z:IN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신학교’ 고신대 학생들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

학생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여러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연이어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신학교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고신대학교 학생들은 최근 부산 영도구 75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쳤다.

고신대 신학과 25학번 정다운 양은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 세대의 학생으로서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 양은 “우리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습관적 탄핵소추, 독단적인 정부 예산 삭감, 간첩법 개정안 반대 등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국가의 사법과 행정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우파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 양은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탄핵을 당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유가 없는 북한과 중국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에게 자유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신교단은 일제강점기 시절 국가가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자비하게 탄핵을 날발해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한 검사마저 탄핵시켜 입법부의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개인을 지키고자 했다”고 했다.

김 양은 “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법치를 말하면서 실상은 삼권을 농락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진정한 독재 세력이자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날 마무리 기도에서 “자유와 정의, 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고신대 김혜원 양은 “현재 대한민국에 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무자비하게 탄핵을 날발해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이재명의 재판을 담당한 검사마저 탄핵시켜 입법부의 권력을 이용해 이재명 개인을 지키고자 했다”고 했다.

김 양은 “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구보다 법치를 말하면서 실상은 삼권을 농락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진정한 독재 세력이자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는 이날 마무리 기도에서 “자유와 정의, 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김진홍 목사 “탄핵 기각, 체제 전쟁 승리의 출발점”

“지금 사태, 자유민주주의와
전체·공산주의의 싸움”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3일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라는 제목의 ‘아침묵상’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밝

혔다.

김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엄령에 이어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사태의 근본 문제는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양당 체제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체제의 격돌이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제주의의 공산주의 체제의 싸움”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이제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치게 종북세력과 친중세력이 진을 치고 있다”며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그렇지 않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군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당을 주도하는 중심에 있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3월 1일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수백만에 이르는 시민들이 모여 춘운 날씨에 비를 맞으며 구국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는 것은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3·1운동 정신 되새겨 민족화합 위해 기도하자”

제38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열려

2025년 제38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3월 1일 오전 서울 삼성제일교회(담임 윤성원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도회는 국가기도운동본부, 한국전력그룹선교회, C-LAMP, Korea CEDAR, 누가선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삼성제일교회, 충무교회, (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민족화합기도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1986년 미국 Cedar Group에서 예배 중에 정근모 장로(전 과학기술처 장관, 전 명지대호서대 총장)는 민족화합을 위해 기도하는 소명을 받고, 1987년 초 귀국해 故 최태선 장로(전 한국유리 회장, 전 한국경찰총연합회 고문)의 전폭적 지원으로 故 김인득 장로(전 벽산그룹 회장), 故 이한빈 장로(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故 서영훈 장로(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그해 3월 민족화합기도회를 발

족하고, 1988년 3월 1일 종로성결교회(현 삼성제일교회)에서 제1회 민족화합기도회를 기졌다.

성창용 목사(충무교회)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 훈 장로(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고, 백영현 장로(삼성제일교회)의 성경봉독과 한국직장선교합창단의 특송 후 윤성원 목사(기성 전 총회장, 삼성제일교회)가 ‘다시 찾아온 삼일절’에(눅 4:16-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윤 목사는 “삼일운동은 단순한 저항운동 아니라 민족의 현실문제를 극복하려는 민족 운동이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1%인 20만 명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삼일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며 “또한 기독교는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선 불행하게도 계엄 이후 대통령 탄



기도회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핵소추라는 엄청난 사건을 맞고 있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삼일절을 맞게 되었다. 민족화합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과 삼일운동의 정신을 되새겨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세상과 교회를 위한 기도’ 순서가 마련돼 오광석 장로(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이사장)와 정철주 장로(Korea CEDAR), 윤정호 장로(민족화합기도후원회)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했다. 예배는 김성만 목사(누가선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선 먼저 정근모 장로(민족화합기도회 발기인)가 인사말을 전했다. 정 장로는 “삼일절을 맞아

합과 일치 및 치유와 회복을 위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다같이 애국가를 제창했고, 홍신종 장로(삼성제일교회), 이성수 권사(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심은현 권사(충무교회), 이운성 집사(민족화합기도후원회)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했다. 예배는 김성만 목사(누가선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진행된 2부 세미나에선 먼저 정근모 장로(민족화합기도회 발기인)가 인사말을 전했다. 정 장로는 “삼일절을 맞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남북통일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기독교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 있을 수 없어”

이후 함재봉 교수(한국학술연구원장, 전 연세대 교수)가 ‘기독교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는 “조선 사람들은 조선이 망하는 걸 슬퍼하지 않았다. 나라를 빼앗긴 건 슬퍼했지만 조선이 망한 것은 슬퍼하지 않았다. 조선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라며 “유교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조선 전통을 거부했다. 그게 삼일운동에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삼일운동은 국권회복운동인데, 그것을 주도했던 이들 중 단 한 사람도 조선을 찾아 다시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은 근세사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완벽하게 과거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바탕으로 만들 어진 나라”라고 했다.

함 교수에 따르면 조선의 백성들은 신분제 아래서 차별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양반과 천민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신분제를 극복했고, 남녀 차별을 없앴다. 또한 투표를 통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품성을 보여주었다.

함 교수는 “이처럼 기독교는 조선을 근대화시켰고, 신분제 극복과 여성 해방을 가져왔으며, 투표와 한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맞다. 교회나 교인 수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딛고 서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거의 모든 것이 기독교가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고, 최신현 장로(C-LAMP)의 마침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북한,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최하위권

‘최악 중 최악’ 국가로 분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발표한 ‘2025 세계자유지수’에서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하며, ‘최악 중 최악’ 국가 그룹에 포함시켰다.

프리덤하우스가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평가하는 두 부문에서 총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부문에서는 40점 만점에 0점,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미국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34점,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50점을 받아 총 84점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각각 32점과 49점으로 총 81점을 받았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자유 지수가 상승한 점도 주목됐다. 세네갈과 부탄은 ‘자유 국가’(Free)로 분류되었으며, 전 세계 208개국 및 지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 67개국 중에서도 북한, 에리트레아, 수단, 시리아 등 17개국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으로 선정했다.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또한 자유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방글라데시는 세이크 하시나 총리에 대한 반발로 인해 정치적 경쟁과 시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스리랑카의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정치적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요르단은

선거 개혁을 통해 ‘비자유 국가’에서 ‘부분적 자유 국가’(Partly Free)로 지위를 격상했다.

반면, 쿠웨이트, 니제르, 탄자니아, 태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 지수가 하락하며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비자유 국가’

로 강등됐다. 투르크메니스탄, 남수단, 수단, 북한 등은 올해도 여전히 낮은 자유 지수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을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 지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

홍은혜 기자

“성령의 불 가득했던 강당” 2년 전 ‘애즈베리 부흥’ 이야기

볼드윈 부총장, 당시 상황 생생히 기록한 책 펴내
도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시대’

미국 켄터키주 월모어의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에서 약 2년 전 일어난 부흥운동은 미국을 넘어 한국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채플 이후 일부 학생들이 남아 기도모임을 계속했고, 이것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주목하는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예배가 드려진 애즈베리대학교 채플에는 연일 빌딩디딤 없이 인파가 몰려, 채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현장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애즈베리대학교에서 학생 생활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라 토마스 볼드윈(Sarah Thomas Baldwin) 박사가

바로 그 때의 부흥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부어주시는 부흥의 세대-2 세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다음시대연구소)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다.

볼드윈 박사는 이 책에서 부흥의 시작으로 알려진 2023년 2월 8일부터 시작해 약 3주간의 이야기를 날짜와 시간대 별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애즈베리 부흥에 얹힌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그것을 직접 보고 느낀 저자의 생동감 넘치는 증언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저자는 2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온 도시가 휴즈애즈베리대학교 휴즈 강당의 문 앞에 모여든 듯 보였다. 1,500명 정원의 공간에 2,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밸코니를 제외하고는 사람

들이 북도와 문간, 로비까지 가득 채웠으며, 무대 앞의 카페는 모든 공간이 차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줄지어 앉아 무대 앞을 가로지르며 하면 누군가를 밟을 정도였다… 지금 나는 휴즈 강당에서 넘쳐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끝없는 예배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암도했다.”

저자 볼드윈 박사는 이 책의 말미에 애즈베리 부흥이 있고 1년이 지난 후의 상황을 기록한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눈에 띈다.

“진정으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주 채플 이후에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남아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캠퍼스 잔디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함께 기도하는 학생들, 예수님께 새로운 헌신을 하는 일들과 친례식은 우리 공동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낀다. 지난 (2023년) 2월 이후에도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했던 것처럼 묻는다. ‘누군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책은 애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남성혁 전신대 선교학 교수가 번역했다. 남 교수는 역사 서문에서 “애즈베리 부흥에 관한 책을 기쁜 마음으로 번역하고 한국교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교회와 학교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옮겨붙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남 교수는 “애즈베리대학교 휴즈 강당에서 일어났던 과거 부흥의 기억과 기록이 2023년 부흥의 지혜를 더하여 준 것 같아, 이 도서의 기록이 또 다시 부어주실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기대와 사모함의 깊이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PRUGIO Ⓛ

회사보유분 20세대 파격지원 혜택

(2025.01.01~01.17 한시적용)

계약금 500만원 (1차)

2월 23일 이후 전매가능

반도체클러스터 최대수혜단지

3,724세대 미니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단지내 에버랜드조경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PRUGIO

총 3,724세대 미니신도시
1단지 1,681세대 분양 중

59㎡A·B/84㎡A·B·C

1544-7780



김진영 기자

종려주일 예배와 수난주일 설교에 관하여

예장통합 제109회기 총회 예배학교세미나 열려

예장통합 제109회기 총회 예배학교세미나가 최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 37:14, 행 9:31)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총회 국내선교부가 주최하고 총회 예배학교가 주관했다.

1부 개회예배는 문장옥 목사(총회 국내외군특수선교처 총무)의 인도로, 김영실 목사(부천노회 국내선교부장, 부천교회)의 기도, 성경봉독, 이춘복 목사(총회 예배학교 위원, 경기중앙교회)의 설교와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강연 순서에서는 ▲최진봉 교수(장신대)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의 예전-종려주일 예배' ▲조성현 교수(부산장신대)가 '수난주일, 설교의 실제'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생명결기와 종려주일

최진봉 교수는 "종려주일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예배당 문 밖 또는 교회의 바깥 공간(도상)에서 시작하여 예배실로 행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세상의 환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구원의 여정을 오늘의 성도들이 축하하며 따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어 "주일 전, 교회는 성도 전체가 안전하게 찬양하며 행진할 길을 정한다. 예배 시간 전 예배인도자를 비롯한 예배위원들은 미리 종려가지 성별과 행진이 시작될 지정된 바깥 장소에서 성도들을 기다리고 안내위원은 예배시작 5분 전, 예배를 위해 예배당에 모여 있는 성도들을 예배인도자가 있는 장소로 안내한다"며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당 밖 지정된 장소

에 모두 모이면 인도자는 구원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인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억한다"며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주일 전날 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종려주일의 예식은 종려가지에 대한 축사의 기도를 행한 후, 종려 나뭇가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것을 들고 행진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회 교회의 경우 성도들은 종려주일에 받은 종려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가 명년 침례의 수요일 전까지 가정의 십자가에 걸어둔다"며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기억하게 된다"고 했다.

이율리 "여기서 절기 주제는 예수 우리 구원자(호산나), 왕의 일상이며, 절기 색상은 빨강색(그리스도의 보혈), 절기 상징은 종려 나뭇가지와 새끼나귀"라고 했다.

◆종려수난주일 설교에 대해

이어 두 번째로 강연한 조성현 교수는 "설교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주석과 해석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 아래서 현대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청중에게 적용하는 선포와 증언"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종려주일은 무언인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종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



이춘복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최진봉 교수가 예배를 시현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에 있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며 21:9)하면서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연유한다"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러나 군중들이 호산나(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호산나를 외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후 주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이 주간을 수난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한다"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독생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간이므로 '위대한 주간'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어느 표현이 더 예배 신학적으로 합당한가. 고난주일은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예수님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한 표현"이라며 "수난주일은 예수님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종려주일-수난주일이 더 합당하다고 본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고난이란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시련을 의미하지만, 수난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의미하는 구속사적이

고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어보다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종려수난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에 관한 본문들(마 21:1~11; 막 11:1~10; 뉴 19:28:40) ▲복음서에 있는 수난 본문들(마 26:14~25; 막 14:1~9; 뉴 22:14~23) ▲구약의 말씀들(사 50:4~9; 시 22:1~11; 시 31:9~16)이 있다"며 수난주일 시 설교할 수 있는 본문 내용으로 ▲왜 절리고 상하셨습니까(사 53:4~6) ▲십자가, 그리고 흔적(갈 6:14~18)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종려수난주일, 수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청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수난 본문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청중이 깊게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에 설교자부터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질의응답과 폐회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만유구원론... 죽음 이후 변화의 가능성 열려 있다?"

김명용 박사, 최근 온신학TV서 '만유구원론' 주제로 강연



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만유구원론은 몰트만 교수가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신학자 오리겐을 통해 알려졌다"며 "만유회복의 이론이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총괄생신의 이론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만유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론"이라며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는데,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되며, 구약에선 스울, 신약에선 하데스라고 표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맥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며, 또한 초대교회의 정신이 아니었다"며 "만유구원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며 베드로전서 4장 6절, 3장 19절을 예로 들었다.

또한 "사도신경에서는 본래 '음부에 내려가시'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선 그 내용이 없다. 바로 '음부에 내려가시'라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하데스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조상의 고백이며 성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히 몰트만 교수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동방교회 안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현상이었다"며 "여기서 세 교회의 종말론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먼저, 개신교는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잘못된 연옥의 교리를 잘라내고, 불행하게도 죽음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 죽은 자의 세계에서 변화될 가능성을 다 잘라내 버리고 죽는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으로 만들어버린 신학이 개신교 신학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로 성경과 초대교회 신학 정신은 죽음 이후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만유가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 구원 사역의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론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만유구원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죽은 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 종말론의 관점이 달라진다"며 만유구원론은 신학적 논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주제임을 말했다.

장요한 기자

장신대, 북한이탈주민 신학생 위한 장학금 전달식 개최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사)길동무, 장신대에 장학금 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길동무가 북한이탈주민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을 위해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를 방문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본교 총장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서기 이성택 목사, 도농사회처 종무 류성환 목사, 도농사회처 실장 이명숙 목사, 길동무 이사 신성재 목사, 본교 남북한평화신

학연구소 소장, 탈북민 재학생 4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김운용 총장과 환담을 나눈 후,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2021년부터 매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가 여러 교회의 후원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탈북민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는 신대원 학생 4인, 대학부 학생 1인, 대학원 학생 1인이 수혜자로 선정됐다.



장학금 전달식 기념 사진. ©장신대

김운용 총장은 "장학금이 탈북민 신학

북한선교의 일꾼 양성을 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교회 맞춤 대출



우리은행 근무 경험으로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드립니다.

- ☒ 금리는 내라고,
금액은 올리고
- ☒ 요양원, 아파트
- ☒ 기타 부동산

박주영 010-8995-3909

하람파트너스

신협 20-0000849

기독교 유일의 24면 일간지!!

기독일보

카카오톡 채널
에서 만나요!
https://pf.kakao.com/_QNVAK/friend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독일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일간지로서,
기독교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문입니다.



성실기독공사



개척교회 염가 공사 / 파이프 탑, 종각
종탑, 대형 십자가 시공, LED 네온 설치
네온 수리, 완공 후 철저한 A/S 보강



(02)923-2466 / HP : 010-5344-2466 / 080-938-0404

<부천지사> (032)349-2466 / FAX : (02)923-2466

홈페이지 <http://ss04.baronweb.co.kr>

캐스빌상가 / tower2466@naver.com

대표 : 박진홍 (성실교회 안수집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교회 창립 50주년 맞아 특별 기도회 개최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기도회 인도하는 김대준 목사 ©교회 측 제공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는 교회,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김대준 목사(LA 비전교회)를 강사로 교회 창립 50주년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50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기도회는 창립 50주년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창립 50주년을 통해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김대준 목사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전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섬김을 드러내는 교회, 기도에 힘

쓰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그는 또 온 성도들이 일생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을 소개하면서,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모두 ‘사랑’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사랑은 가족과 공동체를 치유할 뿐 아니라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라며 “예수님의 사랑이 감정적인 움직임이 아닌, 원수도 사랑하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따라 이웃을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도는 불평과 불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회개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기도를 통해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의 일 하심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민선 기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 창립 37주년 감사예배 드려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담임 최병삼 목사)는 지난 23일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본질을 불러들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순복음타코마제일교회 성도들은 지난 37년 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사랑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단했다.



또 교회가 후원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을 공유하며, 교회 개척사역과 신학교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최병삼 목사(사진)는 교회의 본질과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를 존중하고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김민선 기자



ABHE 정회원으로 승인된 후 기념촬영. © 학교 측 제공

GCU, ABHE 정회원으로 최종 승인

조지아센추럴대학교(GCU, Georgia Central University, 총장 김창환 박사)가 ABHE(Association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한인 설립 대학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ABHE에서 동시에 인가를 받은 정회원으로 기도했다.

원 학교로 거듭난 것이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린 ABHE 연차총회에서 기쁜 소식을 접한 김창환 총장과 임원진들은 “GCU가 미국 유수 종합대학으로 인가받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희 기자

예배 집례는 로뎀장로교회 담임, 재미 고신 서부노회장 박일봉 목사가 맡는다.

문의: 714-222-1110, 562-833-2070, 213-700-7575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세니사이드 장의사: 12301, Magnolia St, Garden Grove, CA 92841.



김민선 기자

뉴송 장로교회 제10대 담임에 장영호 목사 취임

뉴송 장로교회(구: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제10대 담임으로 장영호 목사(43)(사진)가 취임한다.

뉴송 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은 오는 3월 16일(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영호 목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뉴송 장로교회 전도사 및 부목사로 사역하며 행정과 예배, 장년, 청년 사역을 두루 감당했었다.

그러다 2023년 뉴송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현지 교회

개척 및 지도자 양성 사역을 해왔다. 2년 동안 가나에서 사역하며 많은 결실도 얻었다.

10년 동안 뉴송 장로교회를 이끌어 온 김범기 목사는 쉼과 회복이 필요해 은퇴하게 됐으며, 뉴송 장로교회 성도들은 고민 끝에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영호 목사를 차기 담임 목사로 맞게 됐다.

장영호 목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리를 맡겨 주신 은혜에 감사하드린다”며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장영호 목사는 2004 도미해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2017년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는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장 목사는 남가주 동신교회 교육 전도사, 하나님의 은혜 교회 전도사, 시애틀 한인 장로 교회 전도사 및 부목사,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로 사역했었다. 가족으로는 김선옥 사모와 딸 1명을 두고 있다. 김민선 기자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 45대 회장에 안무실 회장 연임

워싱턴주 밴쿠버한인회(회장 안무실)는 지난 2월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제45대 회장으로 안무실 회장을 재추대했다.

당초 제45대 회장으로 추대된 임성배 상임고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하며, 대신 제45대 이사장직을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상임이사회는 신임 이사장 임성배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무실 회장은 이사회에서 다가오는 3월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밴쿠버한인회관 건축위원장으로 양창모 상임이사, 건축위원회 간사로 이홍복 상임이사, 회계로 임만식 상임이사가 선출되었다.



왼쪽부터 임만식, 지병주, 임성배, 안무실, 양창모, 이홍복 ©주최 측 제공

지병주 현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 관련 보고를 통해 양창모 신임 위원장에게 건축기금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안무실 회장, 임성배 이사장, 지병주 건축위원장, 양창모 상임이사, 이홍복 상임이사, 임만식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경수 상임이사와 정영세 상임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김민선 기자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20개국은?

남반구 기독교인의 높은 출산율 및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요인 작용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20개국을 발표하고, 각국의 기독교 성장 촉진 요인들을 공개했다. 20개국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GCR은 “기독교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반구 아시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기독교의 성장을은 열정적인 신앙을 기반한 커뮤니티의 확산에서부터 도시 중심지의 번영하는 교회 설립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독교의 성장은 인구 성장률이 높은 국가와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청소년들에게 신앙이 받아들여지는 지역에서 특히 강력하다”며 “글로벌 사우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이 기독교 인구가 크게 증가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많은 서구 국가에서 기독교는 더 느린 성장을 경험했다”면서 “이주, 높은 출산율, 부흥 운동의 영향,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등이 모두 기독교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빠른 기독교 성장을 이룬 상위 20개국은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에티오피아,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멕시코, 우간다, 베트남, 가나, 아르헨티나, 이란, 모잠비크, 탄자니아, 러시아, 콜롬비아가 선정됐다.

GCR은 나이지리아 기독교의 성장 요인으로 “높은 출산율과 기독교 카리스마 운동”을 꼽고,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기독교 강국으로,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기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장, 도시 복음 전파”로, “정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독교 인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젊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농촌 지역의 복음 전파”이며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 계층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희망과 포용의 메시지에 이끌리고 있다. 또 기독교는 힌두 민족주의가 증가하는 가운데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기독교 카리스마적 영향”으로,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로 알려졌으나 급속한 기독

교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인구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브라질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기독교 성장, 인구 증가”로, “마약 카르텔과 범죄 조직에 의해 주도되는 라틴아메리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브라질은 여전히 강력한 가톨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인구 중 하나이다. 1억 8,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했다.

필리핀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기독교 와의 강력한 문화적 유대감”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극단주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기독교 인구가 있으며, 이들은 계속 성장하는 카리스마적인 신앙 공동체에 중점을 둔다. 이 나라의 거의 80%가 신자라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복음 전파”로, “높은 출산율과 강력한 복음주의적 존재감에 힘입어 기독교 성장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인구의 약 2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복음주의 운동”이라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 중 하나이며, 비종파 집단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청년층 관심, 높은 출산율”이라며 “극단주의의 폭력, 흉수 등으로 인한 이주 문제 속에서 젊은 인구는 기독교에 이끌려 기독교 집단의 꾸준한 성장을 기여하고 있다. 2050년까지 캐나다는 최대 9,5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복음주의 운동”으로, “한국은 특히 도시 전문가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고, 강력한 선교사 영향력으로 유명하다.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고, 불교도는 17%”라고 말했다.

멕시코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복음적 성장”으로, “국가의 마야 카르텔 폭력을 비난하는 노골적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 심화하는 가운데, 복음주의 운동이 급속히 성장했다”고 밝혔다.

우간다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복음 선교”로,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인구의 82%가 기독교인”이라고 알렸고, 베트남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선교 활동, 지하 교회”로, “주로 카리스마적인 기독교의 영향으로 지하



GCR은 “이주, 높은 출산율, 부흥 운동의 영향 등이 모두 기독교의 빠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GCR

교회를 통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나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카리스마적 성장, 청소년 관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기독교는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다. 카리스마적인 기독교 단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카리스마적 확장”으로, “특히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란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지하 교회 네트워크”로, “기독교 공동체는 작지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희망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에 이끌린다”고 말했다.

모잠비크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높은 출산율, 선교 활동”으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으며, 탄자니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청소년 참여 복음 선교”로,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독교는 가장 두드러진 종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선교사 영향, 복음주의 운동”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교회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알렸고, 콜롬비아의 기독교 성장 요인은 “복음적 성장”으로, “악명 높고 폭력적인 마약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가 활발하며 기독교 단체는 인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GCR은 이러한 기독교 성장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첫째 ‘급속한 대중적 운동’을 꼽았다. 기독교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 급속히 확산하면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 이러한 대중적 운동이 신앙에 대한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출산율과 인구 증가이다. 남반구의 인구 증가율은 기독교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출산율은 아프리카 기독교 성장에 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도시화와 교육’이다. 더 많은 사람으로 도시로 이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독교는 도시 환경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젊은 전문가와 교육 받은 중산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면, “라틴아메리카의 기독교 인구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의 국가로 퍼져 나가면서 꾸준한 성장을 경험하고, 아프리카는 출산율 증가, 인구 증가, 카리스마 운동 확대에 힘입어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대륙에서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는 나라들에 속하며, 가정교회, 지하교회, 선교사의 영향력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CR은 “고든콘웰 신학대학원의 세계 기독교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기독교가 새로운 역동적인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남반구에서 계속 증가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약 3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그렇다”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상위 20개국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글로벌 기독교의 풍경을 형성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제113차 세계선교연대포럼 개최 “선교는 삶이고, 삶이 선교 돼야”

전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김호동 선교사 설교
최요한 세계선교연대 대표 “하나님 은혜에 감사”

세계선교연대세선연, 대표 최요한(가) 1일 서울 명동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2층 컨벤션홀에서 ‘제113차 세계선교연대포럼’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김주덕 장로(국제선교신문 사장, 명동 국제교회)의 친양 인도에 이어 강창렬 목사(세계선교총회신학원 원장)의 예배 인도로 드려진 1부 예배에서는 고종숙 장로(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총재)의 대표기도, 이교현 목사(자구총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의 성경 봉독 후 김성수 안수 집사(명동국제교회)가 특송으로 은혜를 끼쳤다.

이날 김호동 선교사(전 GMS 사무총장, 전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는 ‘선교는 삶이다’(18:1~4)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부터 불러하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줄 믿는다”라며 “113차에 이르는 세계선교연대 기도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다시 깨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며 “113차에 이르는 세계선교연대 기도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다시 깨어나는 기회가 되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쓰실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배경선 불가리아 선교사, 김정모 일본 선교사, 김기일 우간다 선교사, 전권재 멕시코 선교사, 홍기정 옥 필리핀 선교사, 마라토너 조명원 집사 등이 인사 및 사역소개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세계선교연대는 2012년 시작된 이래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프린스호텔 별관 2층 컨벤션홀에서 세계선교연대포럼을 개최하고, 2022년 12월 제100차 포럼을 연 이후 이듬해 3월부터는 겨울로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해 선교사들과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고 위로와 힘, 재충전을 얻는 장이 되어왔다.

이지희 기자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지희 기자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센스는 함께!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 같이 할래요?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당신의 에너지센스!

온도주의 ENERGY SENSE CAMPAIGN

산업통상자원부 마루기스공사

미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기도하며 트럼프 내각 첫 회의 시작

미국 텍사스 대형교회 목사이자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인 스콧 터너는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내각 회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터너 목사는 “아버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신의 자비는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고 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이 국가를 이끌 기회

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임명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도록 기쁨 부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터너 목사는 대통령, 부통령,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기도했다.

그는 “주님, 우리는 의로운 명예함으로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든 잠재적 기관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섬기면서, 아버지, 우리

는 당신 앞에서 겸손해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섬기라고 부르신 방식으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성경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의 합당한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아버지, 이 나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미국 국민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의 대화에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 터너 목사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터너 목사는 기도 영상을 트윗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내각 회의에서 개회 기도를 드린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를 신뢰하여 주택도시개발부를 이끌게 하시고, 전국의 미국인들을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터너 목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백악관 기회 및 활성화 위원회의 전무 이사로 지난 뒤 이번 달 초 HUD 장관으로 확정됐다.

이미경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내각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있다. ©트위터 영상 캡처

미 플로리다 성공회 교회 3천 번째 교인 세례 “하나님 손길”

미국 플로리다에 소재한 한 성공회 교회는 교단 전체의 쇠퇴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인 수가 3천명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라소타 구세주 교회(Church of the Redeemer of Sarasota)는 지난 2월 16일(이하 현지시간) 케이시 제인 클레그와 루비 메이 스피어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교인 수가 3천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두 아기는 각각 3천번째와 3천1번째를 대표했고, 교구는 두 숫자를 나타낸 금색 풍선으로 이 행사를 축하했다.

교회는 CP에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 두 아기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기립 박수를 받았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교회 사제인 찰스턴 월슨 신부는 “하나님의 손길이 ‘리디미’(Redeemer)에 분명히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놀라운 이정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과 모든 기독교인을 새롭게 만드는 데 두 배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리디미 교회에는 150명의 새 신자가 등록했으며 올해는 47명이 새 신자로 등록했다.

월슨 신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 “예수님은 리디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시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비밀 무기’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의 리디미교회가 3천번째와 3천1번째 교인의 세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리디미 교회

그는 “저는 리디미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교구와 연결된 사람들은 자비로운 그리스도, 즉 성경의 예수님과 매우 깊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연결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리디미 교회의 성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쇠퇴를 겪은 대부분의 다른 종교 단체와 마찬가지로 성공회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2010년 성공회 교단의 회원 수는 2백

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이 교단의 교인 수는 약 154만 7천 명이다.

수년간 교인 수의 감소가 계속되었지만,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연속 예배 참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에는 평균 참석자 수가 약 41만 1천명, 2022년에는 약 37만 3천명, 2021년

에는 약 31만 2천명이었다.

지난해 손로우 목사가 미국 성공회의 새로운 수석 주교로 취임하면서, 교단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인 마이클 커리 목사의 뒤를 이었다.

로우 목사는 취임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 “교회와 교구가 혼자서 할 수 없다”라며 “우리의 상호 의존성, 함께 사역할 필요성, 우리가 가진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구와 기관의 집합이 아니며, 일을 하는 방식의 집합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며 “이 일, 일과 행동으로 예수의 부활과 삶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공회 교회를 부르신 일이며, 지금과 항상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마크롱 “트럼프, 유럽에 관세 부과하면 보복 관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해 25%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FP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포르투갈을 국빈 방문 중인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EU

는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인들도 이에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보복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듭 “발표된 대로 4월 초 유럽 제품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가 부과

된다면 유럽인들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미국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나톨루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웠다며 “희망을 거의 갖기 못한 채 (미국을) 떠났다”고도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년 간 유럽의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옹호해왔다”며 유럽은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으로 국방, 기술,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일한 해답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

던 루이스 몬테네그로 포르투갈 총리도 “물론 유럽은 (미국에 대해) 관세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을 망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고 곧 발표할 것이다. 25%가 될 것”이라며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했다.

EU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무역 파트너 2곳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주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를 언급하며 세금이 “일반적으로(generally)”으로 적용될 것이라

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폰 데어 라이엔 “EU, 인도와 올해 안 세계 최대규모 FTA 체결”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 EU와 인도가 올해 안에 오랫동안 지연돼온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무역 및 기술, 연결성 국방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뉴델리의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애심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인도 간 FTA는 전 세계 모든 FTA 협정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확

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의 모든 약속을 믿어도 좋다”고 했다. 그녀는 지난달 27일부터 인도를 방문했고, EU 회원국 정상들과 동행했다.

인도와 EU는 2021년 오랫동안 보류돼온 FTA 회담을 재개했지만 자동차와 알코올 음료와 같은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걸림돌이 돼 왔다. 인도와 EU는 외교 정책, 안보, 기술을 포함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EU는 미국의 잔재적 관세에 직면하여 인도와의 FTA 협정을 마무리짓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EU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 중국을 앞지르는 인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2023-2024 회계연도 인도와 EU 간 총 교역량은 1300억 달러(약 190조 원)을 넘어서 지난 10년 간 약 90% 증가했다. 6000개가 넘는 유럽 기업들이 인도에도 진출해 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인도가 금세기의 결정적인 동반자 관계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방문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모디 총리와 나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EU-인도 전략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 올릴 때”라고 말했다.

유세진 기자

힘센 충남아!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아!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총청남도



Maeil

에드워드리의 선택

1등* 저당두유 매일두유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을 확인해주세요!



매일두유 제품은 온라인 및 전국 할인매장, 슈퍼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처 문의: 매일상담센터 1588-1539

*칸타 코리아 월드패널 사업부 2021-2023년 한국 저당 및 무당 두유 시장 내 제조사별 점유율 기준



(주)한국비건인증원 인증

한국 사회, 6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갈등 인식

진보-보수 갈등 심화… 정부 신뢰도는 여전히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한 사회적 갈등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4점 만점에 3.04점으로 평가됐다.

갈등 유형별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3.5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3.35점), 2023년(3.42점)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이 청년 및 노년층보다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보다 더 높은 갈등을 체감했다.

그 외 주요 갈등은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갈등 3.06점 ▲노사 갈등(영규직과 비정규직) 2.97점 ▲민부 갈등 2.96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 2.81점 순이었다. 반면, 기준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2.65점)과 젠더 갈등(2.6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는 사법부(43.65%)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행정부(39.07%)와 입법부(24.59%)가 그 뒤를 이었다.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매우 신뢰한다'(4.08%), '다소 신뢰한다'(39.57%)로 집계됐으며,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56.34%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32.5%) 대비 11.15% 증가한 수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불신을 드러냈다.

행정부 신뢰도는 2014년 35.1%에서 2021년 47.91%로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39.07%를 기록했다. 입법부 신뢰도는 가장 낮았으며,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2.26%, '다소 신뢰한다'는 22.33%,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75.41%에 달했다.

한편 2024년 사회통합 수준은 10점 만점에 4.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4.59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농어촌(3.99점)의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중소도시(4.30점)와 대도시(4.39점)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01점)가 고졸(4.19점) 및 대졸 이상(4.48점)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내래 기자

김기현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돼”

3.1절 106주년인 3월 1일,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총 37명으로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윤재옥·박대출·이현승·이종배·추경호·송언석·성일종·김정재·이민학·김석가정·점사김은혜·권영진·박수영·유상범·이인선·구자근·정동만·장동화·강대사·강민국·서일준·김미아·이종욱·서천호·강명구·김장겸·임종득·김종양·박성훈·조지연·강선영·정희용 의원이다.

이들을 대표해 발언한 김기현 의원은 “여기나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이셨다. 오늘 3.1절 106주년인데 우리 독립을 민

초들이 이뤄낸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개인의 안일함보다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힘, 누구보다 앞장서는 많은 국민들의 힘,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이 하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의 3.1절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뉴시스

에 꼭 상당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헌법학자 “마은혁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 헌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결정 비판



헌법학자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사진)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결정의 핵심 내용

이 교수는 이번 결정(2025헌화1)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을 뿐,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명하는 청구는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국기기관 간 부작위를 다투 경우 권한 침해 여부만 확인할 뿐, 새로운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 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장 단독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법한가?

이 교수는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어떻게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로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국회의장의 대표권이 본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권한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한다”는 임명 측구 결의안을 가결한 것이 사후적으로 청구 적법성을 보완했다고 해석한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본회의 의결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권한은 ‘재판관 선출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구성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국회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국회)도 심판청구서에서 스스로 ‘재판관 선출에 관한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넘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갖는 독립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면, 국회의 선출만으로 헌법재판관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대통령제의 원칙과 맞지 않으며,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 여부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국회의 권한 침해를 확인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헌법기관 간의 권한 다툼에서 특정 기관의 행위를 강제하는 형성적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관례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적인 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임명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결론지었다.

박용국 기자

전영준 교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노무현 탄핵 기각 사례 비교

전영준 화신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사진)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



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만큼, 재판관들의 성향과 진영 논리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가능성은 크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제11차 변론으로 종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인용이나 기각이나에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탄핵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약 53%,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으로는 거의 50대 50의 절전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암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현재는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를 결정해 탄핵이 기각됐다”며 “헌법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수용 역시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볼 때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문형배(문재인 대통령 지명), 이미선(문재인 대통령 지명), 정계선(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득(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조한창(국민의힘 국회 추천)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이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선고에서도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인용 요건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며 “특히,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득 재판관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용국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감사원, 선관위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확인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 결과… 10년간 규정 위반 878건 적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체)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하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선관위 내부 만연한 특혜 채용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의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와 비리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사도 선관위에 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167회의 경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662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고, 중앙선관위에서도

124회의 경체 중 216건에서 유사한 문제 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내부에서 조사 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이 공공연한 관행이었다"며, "일부 직원들은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불공정한 채용이 만연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했으며, 오히려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조장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불공정 채용 과정과 사례

경남선관위의 한 과장은 자신의 자녀가 선관위 경체에 응시한 사실을 채용 담당자에게 알리고, 지속적으로 진행 상

황을 문의했다. 결국 해당 자녀는 최종 합격했다. 전남선관위의 다른 간부는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서명만 하도록 요청한 뒤, 내부에서 응시자 순위를 임의로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한 특정 인원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응시자는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또 중앙선관위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2021년에 경체를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 담당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간부들이 자녀와 지인을 데려오기 위해 경체를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를 공유했지만, 방지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태 문제도… 선관위 관리 부실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

러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 강원선관위의 한 과장은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서 총 817일을 체류했으며, 이 중 100일은 무단결근이었다. 그가 과다 수령한 급여만 3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9년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이후 본인이 직접 휴가를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48일간 무단결근하고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러한 행태는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권 제한과 선관위 개혁 필요성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채용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선관위의 한

과장은 박진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 면접 시험과 관련한 평정표를 조작하고,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문제는 은폐된 채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관위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선관위 내부의 자정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원장 선출 방식과 감사 제도 개혁 필요

개혁 필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원장 선출 방식과 감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법관 출신이 맡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 감사 과정에서도 현재 판사 출신들이 선관위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 것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인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비롯한 독립 기관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용국 기자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윤성 초대회장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사진)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현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인사 감사에 대한 권한생에서 감사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도 선관위에서는 662건, 중앙선관위에서는 216건의 채용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며 선관위의 심각한 비리 문제를 강조했다.

이 씨는 "선관위 직원들은 이러한 관행을 전통이라 부르며, 중앙선관위는 인사비리와 관련된 투서를 접수하고도 조사 없이 덮어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직원들의 인사비리를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무총장의 자녀가 부정 채용되었고, 해당 직원이 '세자'라 불리며 각종 혜택을 누린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걸쳐 있었으며, 사무총장부터 일반 직원들까지 인사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개입이 어렵고, 대법관과 판사들이 선관위의 인사 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선관위의 인사 감사 권한은 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은 사무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예외로 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선관위를 압박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현재 선관위의 인사비리 건수가 800건을 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선관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라는 결정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며 "사무총장부터 개입된 인사비리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번복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처럼 감사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앞으로 감사원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성역처럼 남겨둘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박근혜 정부 때는 문제를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문재인

을 법관들이 맡는 구조가 문제로 작용했다"며 "현재 재판관 대다수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아닌 인사가 맡도록 하고 보다 독립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선관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보호되어 내부 비리를 스스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용국 기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 사용 논란

감사원 "사적 이용 정황"



약 및 물품 관리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정보정책과 예산을 이용해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해 휴대전화를 사적 이용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총장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3월 18일 퇴직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김 전 총장에게 기기 반납을 요청했으나, 그는 초기화된 상태로 이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퇴직 후 해당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상태로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초기화를 진행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이를 사적 사용 의도를 숨기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올해 1월 26일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해당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관사에서 짐을 정리할 때 직원이 실수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의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미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점이 의심스러운 요소로 지적됐다. 또한 김 전 총장이 주장한 '관사 짐 정리와 관련해 당시 선관위 직원들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국 기자

양천·강남·송파 등에서 신고 건수 최다… 학교당 평균 신고도 높은 수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은 학교당 평균 신고 건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해, 경쟁이 치열한 교육환경이 학교폭력 발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2024년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통계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시 내 중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1만

8082건에 달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학교폭력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양천구로, 총 1493건이 신고됐다. 이어 송파구(1260건), 강남구(1238건), 성북구(1088건), 노원구(1030건)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학교당 평균 신고 건수 역시 양천구가 78.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천구에는 총 19개 중학교가 있으며, 학교별 신고 건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뒤이어 성북구(60.44건), 강북구

(59.62건), 광진구(58.17건), 도봉구(54.70건) 순으로 학교당 평균 신고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강남구는 51.58건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지만, 전체 신고 건수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서울에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가장 적었던 자치구는 중구였다. 중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구는 관내 중학교가 8곳으로 서울에서 중학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당 평균 신고 건수도 16.63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나라 기자

서울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 교육열 높은 지역에 집중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 몬타냐드 기독교 난민 60여 명 체포·위구르족 40명 中 강제 송환

크리스천포스트(CP)는 태국 방콕 당국이 베트남에서 박해를 피해 온 몬타냐드(Montagnard) 기독교 난민 60여 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P는 태국 정부는 40명의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방콕 인근에서 기도 및 예배를 드리던 몬타냐드 기독교인 6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남성 여성, 어린이와 함께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법적 서류 없이 태국에 체류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일부는 법원이 부과한 벌금(약 120달러)을 납부하지 못해 계속 구금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태국 이민 당국에 인계했으며,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은 8일간의 징역형

을 받은 뒤 방콕 이민 수용소인 수안 플루(Suan Plu)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몬타냐드 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소 43명이 태국에서 발급한 난민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들을 즉각 베트남으로 송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추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CP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몬타냐드 인권단체 '몬타냐드 정의를 위한 연대(Montagnards Stand For Justice, MSFJ)'의 활동가들도 체포됐다고 밝혔다. MSFJ 창립자는 2024년 중반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태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으며, 현재 태국 항소법원의 법조인 인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MSFJ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베트남 몬타그나르들이 프놈펜으로 공수되기 위해 라타나키리 주 반통에 있는 비행기로 걸어가고 있다. 수백 명의 베트남 몬타그나르들이 억압적인 베트남 정부를 떠나 캄보디아로 걸어가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있다. ©Christian Post

했으나, MSFJ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는 4,000명 이상의 베트남 난민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앙이

지 않아, 이들은 국제법에 따른 난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8일 중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피한 위구르족 40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기독교 연대 세계(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에 따르면, 방콕 이민 수용소에서 창문이 가려진 차량 두 대가 위구르족을 태운 채 출발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중국 불법 이민자 40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고 보도했으며, 공개된 사진에는 위구르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3월 중국을 탈출해 태국으로 넘어온 약 300명의 위구르족 중국으로, 당시 체포된 300명 중 상당수는 터키로 이송됐으나, 109명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바 있다.

CSW는 현재 방콕 그랑프리 중앙교도소(Klong Prem Central Prison)에 5명의 위구르족이, 방콕 이민 수용소에 3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이번 위구르족 강제 송환 조치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중국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구르족들은 박해, 강제노동,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태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UN 고문방지협약과 강제 실종 방지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태국 국민들의 오랜 인도적 전통과 맞지 않으며, 인권 보호에 대한 태국의 현신과 모순된다"고 했다.

미국 방콕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이전의 유사한 강제 송환이 폭력적인 보복 공격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승연 기자

인도에서 개종 시도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은 기독교 부부, 보석으로 석방

법원, 반(反)개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부부에 보석 허가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던 기독교인 부부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기독교계는 법정에서 제출된

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러크나우 벤치가 지난달 이들 부부에게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몇 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조제(Jose)와 시자 파파찬(Sheeba Pappachan) 부부는 지난 1월 22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반(反)개종법"인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Ac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2만 5천 루피야(3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이 2022년 성탄절 행사에서 저소득 계층인 달리트(Dalit)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종 유인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함께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소속 주의 원이 제기한 고소장을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으며,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불가족 천민 및 부족 보호법'(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ies) Act) 조항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부부는 법정에서 자신들은

단순히 교육을 장려하고, 공동체 식사를 마련하며, 성경을 배포했을 뿐 강제 개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종을 조건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으며,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술을 멀리하고 자녀 교육에 힘쓸 것을 권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CSW 회장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조제와 시자 파파찬 부부가 유죄 판결 후 비교적 빠르게 보석을 허가받은 점은 다행이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런 법의 애매한 조항들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CSW는 우타르프라데시 당국에 "현재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反)개종법이 위헌임을 인정해 이들을 무죄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주에서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들 법은 강제 개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 명시돼 있지만, 금지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부분의 선교 활동과 종교적 접근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타르프라데시에서만 최소 80명의 기독교인이 유사한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의 전국 코디네이터인 A.C. 마이클(A.C. Michael)은 "개종 시도 혐의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상급 법원의 심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타르프라데시의 반(反)개종법은 2024년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피해자나 그 직계 가족만 고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제3자가 개종 관련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독교 단체들은 법이 더욱 난용될 가능성 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흥은혜 기자

1946년
조용하지만 커다란 혁신이
한화생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8년 동안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세계가 함께하는 보험사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 Need 연계 암보호 시스템 제공

그리고 한화생명이 이끄는 보험의 혁신은
시그니처 암보험, The H 건강보험과 같은
상품과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혁신으로
더 나은 고객의 삶을 위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혁신
오직 한화생명으로부터

한화생명

탈레반, 영국인 부부 포함 외국인 4명 구금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당국이 영국인 부부와 중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4명을 구금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체포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탈레반 측은 "특정 고려사항(certain considerations)"이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영국 BBC와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피터 레이놀즈(79)와 아내 바비(75)는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탈레반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18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탈레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의 노동과 12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을 금지한 탈레반의 정책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탈레반 내무부 대변인 압둘 마틴 카니

는 "아프가니스탄 신분증을 소지한 영국인 2명과 중국 및 미국 국적을 가진 1명, 그리고 그들의 통역사 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확인과 체포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레이놀즈 부부는 체포 직후 자녀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사흘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2주가 넘도록 가족들은 부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다. 부부의 자녀들은 탈레반에 석방을 호소하며 "부모님이 체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몸값 협상에 응하거나 인질로 거래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며 부모의 의사를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영국 국적자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구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탈레반에 체포된 레이놀즈 부부 ©BBC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수도 카불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외교적 지원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탈레반은 2022년 여성의 NGO 활동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여성을 고용하는 모든 NGO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성의 교육과 노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체포가 이러한 정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은혜 기자

"콩고서 기독교인 70명 참수된 채 발견"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2주 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기독교인 70명이 참수된 채 발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어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매우 큰 국가에 속하고 기독교인 인구도 많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들이 동부 국경을 따라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며 "주요 박해 세력 중 하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연합민주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 마을이 습격당하고, 교회가 파

괴되고, 수백 명의 성도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있다"고 했다.

불과 2주 전, 현지 여러 마을에서 남치된 기독교인 70명이 북동부의 카상가 마을의 한 교회 안에서 참수된 채 발견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용의자로 의심되는 연합민주군 대원들이 기독교인 주민들을 한 개신교 교회 안에 감금했다가, 결박하고 정글용 칼로 참수했다고 한다.

지난 1월, 연합민주군의 공격으로 15명이 사망한 후, 콩고민주공화국 북부주 노령구 기자



폐허가 된 교회 현장의 모습 ©한국VOM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구절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이 로빈 슈마허의 기고글인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구절은?'(Is this the most embarrassing verse in the Bible?)을 최근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하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냄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랫동안 기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비판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마태복음 24:34)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자신의 재림이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일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인다. 회의론적 철학자인 버트런드 라셀도 그렇게 해석했다.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Why I am not a Christian)라는 에세이에서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재림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증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

C. S. 루이스도 「세상의 마지막 밤」(The World's Last Night)에서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묵시적(종말론적) 믿음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신약성경을 보면, 그들은 모두 재림이 자신의 생애 중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더욱 난감한 점은, 그들이 그렇게 믿은 이유인데, 그 이유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들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 믿음을 공유하셨고, 사실상 만들어내셨다. 그 분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렸다."

아어서 루이스는 자신의 견해로 돌아와서 다소 충격적인 말을 덧붙인다. "이것은 확실히 성경에서 가장 난감한 구절이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불과 14단어 뒤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일수와 '무지에 대한 고백'이 나란히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복음서 기자들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가? 만약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알지 못하셨다면, 정통 기독교 교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요? 더 나아가, 어떤 사실을 모르셨다는 것과 잘

못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잘못 말씀하셨다면, 다른 어떤 것도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는가?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죄 없으시고, 무오하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회의론자 바트 어만(Bart Ehrman)은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되었는가」(How Jesus Became God)라는 책을 썼으며,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창작해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미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며, 이 복음서들이 요한복음보다 훨씬 일찍 쓰였다고 지적해왔다.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면, 미태, 마가, 누가가 그것을 빼뜨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예수님이 신성이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와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내용을 별도의 글에서 다룬 적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것이 성경적 진리라면, C. 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난감한" 실수를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태복음 24:34의 의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마태복음 24:34) 여기서 핵심 질문은 "세대"(generation)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헬라어 단어 genea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 인종이나 민족(예: 유대 민족), 일정한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예: 특정 시대를 사는 세대), 특정한 시대나 시기(예: 한 시대의 흐름)

성경 학자들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여러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시 살아 있던 세대에 국한시키셨다고 믿는 학자는 없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묘사하신 "모든 일"은 1세기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1:43에서 그 당시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세대가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

따라서 일부 신학자들(예: 찰스 라이어)은 genea가 유대 민족을 의미한다고 보고, 저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살

아 있는 세대", 즉 대환난의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핵심은,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이 1세기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예수님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36의 의미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36)

여기서 예수님의 무오성(틀리지 않으심)과 전지성(모든 것을 아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성육신(하나님이 사람이 되신)의 신비와 관련이 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셨다고 말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전지성 일부를 제한하셨다고 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별립보서 2:7) 따라서 예수님은 성육신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현재는 전지성을 회복하셨다.

C. S. 루이스는 훌륭한 사상가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만한 것 같다. 예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다.

최승연 기자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의 중요성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쉐리 워드 CEO의 기고글인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의 위험성'(The danger of working FOR God and not WITH Him)을 1월(현지 시간) 게재했다.

쉐리 워드 CEO는 Square Tree Publishing & Productions의 CEO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나는 1985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롤웰 인더내셔널(Rockwell International)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우주 왕복선 철린저(Challenger)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우리의 책상은 국제우주정거장(ISS)만큼 거대한 격납고 안에 있었고, 가슴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NASA는 우주여행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사회과 교사인 뉴햄프셔 출신의 크리스티 매콜리프(Christa McAuliffe)를 최초의 민간인 우주원으로 선정했다. 그녀는 우주에서

"궁극의 현장 학습"(The Ultimate Field Trip)과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나아갈 길"(Where We've Been, Where We're Going)이라는 두 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1986년 1월 28일, 회사는 대형 TV 화면을 설치해 우리가 철린저의 발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발사 순간, 동료들과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그러나 73초 후, 철린저는 폭발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그리고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마치 2001년 9·11 테러 당시 느꼈던 경정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참여한 일이었다. 이후 조사 결과, 추운 날씨로 인해 고무 O-링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나의 작은 부품, 유난히 추운 밤, 시기를 놓친 발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님의 우주 왕복선을 파괴했고 승무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다.

만약 기온이 더 높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철린저는 잘못된 타이밍에

발사된 것이었다.

◆너무 이른 '발사'는 위험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영적으로도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세상은 성과, 생산성, 지표에 집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work FOR God)을 우선시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partner WITH God)을 놓치고 있다.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로 변질되기 쉽다.

한 번은 내가 진행하는 스퀘어 트리 퍼블리싱(Square Tree Publishing)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을 발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의 책, 제품, 서비스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멈춰 섰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었다.

더 큰 플랫폼, 더 높은 판매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에서 모든 성공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영적 '발사'를 준비하는 법

철린저 사고를 통해 NASA가 O-링 문제를 간과한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문제를 무시한 채 너무 빨리 '발사'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할까?

내면의 치유(Inner healing): 하나님께서 다른 고자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결손 유지(Stay low): 언제나 결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공이 찾아와도 그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지 말라.

배움을 지속하기 (Always learning): 하나님과의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Bring others): 나만의 플랫폼을 쿠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위에 서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꾸로 된 질서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모두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멘토링, 협력, 나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미션을 준비하셨고, 당신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쓰신다. 하지만 너무 일찍 움직이면, 철린저처럼 암박 속에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신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과정에 완전히 순종할 때, 그분은 당신을 상상도 못 할 방식으로 '발사'하실 것이다.

최승연 기자

SAMJIN 삼진제약

발열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광고심의필 :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헤피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후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박형룡 박사의 3·1 독립운동!



정성구 박사
전 종신대 대신대 총장

3·1 운동 106주년이다. 3·1 운동은 기독교 대표 16명을 포함해서 주로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났다. 3·1 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지방으로 확산 확대되었다. 박형룡은 기독인하면서 애국애족의 청년이었다. 당시 평양 숭실전문학교 학생이었던 박형룡은, 기악과 성악을 하는 음악인들로 구성된 '순회 전도대'를 결성하였고, 지방 순회 강연을 했다. 그의 나이 겨우 24세에 불과한 옛날 청년이었다.

그는 1920년 4월 초, 순회 전도대원의

설교 책임자로 배편에 올라 부산에서 목포로 가던 중, 남해를 통과하면서 시를 썼다. 그는 남해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저녁에 1절을 짓고, 이튿날 새벽에 2절을 짓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30년이 흐른 후 1950년 10월 13일 저녁 목포 근 해상 군용선상에서 북한 공산군이 물려가고 북진하는 중에 환도하는 피난민 성도들을 위한 예배 중에 설교의 마지막에 이 시(詩)를 낭독하고 과거를 회상했다. 박형룡의 시(詩) 가운데 꼭 100년이 넘은 가장 오래된 시(詩)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詩) 두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충무공(忠武公)】
진도 섬에 여기더니 충무공(忠武公)이
그리워라

거북선 어디 가고 빈 물결만 출렁출렁 물 있고 그 배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
충무공 가신 뒤에 유수광음(流水光陰) 3백여 년
거북선 뜨던 물에 만국 수군 모였구나
오늘에 거북선 없어도 만국함대 여기 있네

두 번째로 소개할 시(詩)는 '목포 감옥'이다. 박형룡은 1920년 4월 9일, 당시 평양 숭실 전문학교의 전도대원 중에 수석 연사로 발탁되어, 4월 7일 목포 양동 교회에서 '하늘의 칼'이란 제목으로 1,300명이 넘는 청중들 앞에서 뜨겁게 설교를 했다. 당시 목포의 인구가 15,000명이었으나, 10분의 1이 그 집회에 참석한 셈이다. 그의 설교는 일종의 전도 강

연이었지만,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설교였다. 박형룡 박사는 '일제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청중들에게 강연했다. 즉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며 일본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받아 패망할 것이다'라는 메시지였다.

3·1 운동 이후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던 시

기애 박형룡은 대담한 설교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박형룡은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 종일 기도하고, 이튿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아침 7시 20분경에 막 광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박형룡은 목포 경찰서 박 형사에 의해 체포되어 유치장 2개월, 정식재판으로 감옥 8개월 도합 10개월 동안 영어(囹圄)의 생활을 했었다. 그의 감방문에는 '보안법 위반자'라는 죄명이 붙어 있었고, 평양 숭실 전문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

세를 부르다 잡혀 온 청년들과 한방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독방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썼다.

【목포 감옥에서】

유달산 해 기울어 석양이 된 때

목포부 연자동 20번지의

높은 담 철창 속에 들어 왔구나

성명은 변경하여 하우온주고(140호)

기호는 낮아져서 오마에르다

간수도 노 호령에 떨고 있으니

영어(囹圄) 중에 이 신세 가련 하고나

박형룡 박사는 신학자로서 개혁주의

교의학을 완성했고, 한국교회의 교부로

서 수많은 강연과 설교를 해 왔다. 그는

소사적부터 타월한 응변술이 있었고, 평

양 숭실 전문학교에서 신교육을 받았

다. 또 중국 낭경 금릉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기독교 변증학'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문필가이자 설교가이고, 시조 시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시조를 지어서 설교 끝에 자신의 자작시를 낭독하기도 했었다.

필자는 몇 해 전, 호남기독교회의 텃줄이라 할 수 있고, 호남에서 제일 큰 '목포 양동교회'를 직접 방문하였다. 유진벨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목포 양동교회는 호남의 관문이자, 3·1 운동의 거점이 되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만세운동에 앞장선 교회이기도 하다.

어느 의미로 보나 우리는 박형룡 박사를 자유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애국자요, 위대한 독립유공자로 추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진리를 따르리라



김희보 은퇴 목사
예장 통합 용천노회

【말씀과 명상(41)】 좁은 문: 지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고린도후서 13:8-9a)

여기서 '진리'(알레데이아)는 일반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뜻한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끝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바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리'가 자신의 명예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甘受)할 수 있으며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격 없는 사도라는 혹평을 받고 버림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바울이었다.

영호의 완성을 내부에서 추구하는 여주인공 알리사가 등장하는 작품이 앙드레 지드(Andre Gide, 1869-1951)의 『좁은 문』(La Porte Etroite, 1909)이다. 제롬은 알리사에게 자신의 명예에 우선한다는 것을 알리사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

알리사는 육체적 사랑과 인간적 행복을 포기하고 고행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래서의 영혼이 합일(合一)되는 경지로 승화하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수녀원

양을 가진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 출신으로, 청교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의사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제롬의 학업을 위해 파리로 이사한다.

제롬은 매년 여름 르아브르에 있는 외삼촌 뷔콜랭 댁에서 두 살 연상인 외사촌 누이 알리사와 함께 방학을 보낸다. 외숙모 뷔실은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며 가출한다. 제롬은 알리사가 그러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며 신비로운 알리사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다.

제롬은 알리사가 함께 보티에 목사의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狭窄)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알리사는 여동생 줄리에트도 제롬을 남모르게 사랑하지만 언니에게 제롬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다. 알리사도 제롬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올바른 것인지, 또한 제롬의 사랑 속에도 자신과 같은 육체적 욕망이 존재하는지 확신을 얻지 못한다.

알리사는 육체적 사랑과 인간적 행복을 포기하고 고행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래서의 영혼이 합일(合一)되는 경지로 승화하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수녀원

으로 도피할 궁리를 한다. 3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맑은 공기가 미소 짓는 듯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어느 아침. "알리사, 줄리에트도 결혼하여 이제 행복스러우니 우리도 서둘러야...." 알리사가 시선을 제롬에게서 돌린 채 말하였다. "너와 함께 있을 때면 이런 행복도 있구나 싶게 행복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지 않나?"

"그럼 영혼은 행복 이외에 무엇을 추구하니?" 제롬의 물음에 알리사는 소근거리듯 말하였다. "거룩함이자...." 제롬의 모든 행복은 날개를 벌려 하늘을 향하여 제롬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네가 없으면 나는 영혼의 거룩함을 얻지 못할 게 아니니?"

그날 만찬 때 알리사는 紫水晶(자수정) 목걸리를 걸지 않았다. 제롬은 쓸쓸한 마음으로 알리사의 걸을 떠났다. 알리사는 "내가 수정목걸이를 걸지 않고 만찬에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게서 떠나 줘" 하고 미리 선언했던 것이다.

수녀원에서 죽은 알리사의 노트에는 다음 구절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는 제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당신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롬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고대하는 이민 교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KCMUSA 이사장

창던지는 자의 실로암

이민 사회에 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기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부터는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각각 수백 명의 성도가 모여 고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민 사회한 모퉁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나라를 선하게 이끄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28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에 걸쳐서,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다시 기도회가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주조선일보LA가 남가주 한인 지도자들과 상공인을 초청하여 조찬기도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요"(렘 9:23-24)라는 제목으로 살롬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부족한 제가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 정체를 공동기반으로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를 통해 시대를 개혁한 나라들입니다.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신앙을 이어받은 독일, 콤빙글리와 캘빈의 개혁으로 변화된 스위스, 캘빈의 사상이 흘러

들어간 장로교를 가진 스코틀랜드, 왕당파에 대항하여 공회제를 시행한 청교도 혁명(1642-1951)의 영국, 그리고 독립전쟁 중 4차례나 기도의 날을 가지며 독립한 미국은 그 심원한 공통 기반으로 성경과 기도라는 영적 지하수를 공유했음을 보입니다.

이번 기도회의 내빈 중 특별히 상공인으로서 활약하시는 분들이 나와 현재의 척박한 상황 속에서 난관을 극복하시는 다양한 지혜와 깨달음을 나누어주셨습니다.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지금의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어렵다"고 백 합니다.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책 발표는 급진적이지만, 아직 유가로 떨어지지 않았고, 불경기의 기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여러 상공인이 공동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로봇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업만이 불황을 모른다고 합니다. 심지어 컨설팅까지 이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상황이나, 시대의 변혁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고국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속히 정치적 어려움을 종식하고 일어나, 새로운 나라로 발돋움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정치경제적 난관을 기회로 바꾸는 민족 되게 하소서." 간절한 민족의 눈물이 하늘에 상달되어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시 126:6) 하소서.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석으로 졸업하고, Ivy League 대학 중 하나인 UPenn(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를 받은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공부만 잘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은 쾌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일류 대학을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합니다. 결혼은 시킬 처녀를 둔 부모들이나 본인들은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일등 신랑감으로 여깁니다. 게다가 신랑 집안이 부자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일류 대학, 대기업 사원, 재벌 집안의 아들이란 조건은 그의 외형일 뿐이고,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심성(心性)을 가진 사람이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화를 여지없이 깨어 버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니콜라스 만조네(26)는 볼티모어의 저명한 부동산 개발업자 집안의 아들로, 그의 가족은 두 개의 골프장과 멤플랜드 지역 라디오 방송국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 집안 아들입니다.

만조네는 볼티모어의 명문 사립학교를 수

석으로 졸업하고, Ivy League 대학 중 하나인 UPenn(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학사와 석사를 받은 이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였습니다. 그는 공부만 잘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많은 쾌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24년 12월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회사인 United Health Care의 회장을 암살하였습니다. 만조네야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만한 조건을 두루 갖춘 친구였습니다. 재벌 집안에, 명문 사립 고등학교 수석 졸업, 아이비 리그 학사와 석사 학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배우자 선택의 최우선 순위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외형은 모두 헛것이고,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일 살인의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가 회장을 죽인 이유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가 앓고 있는 지병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회장이 연봉 1천만 달러를 받고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거대 보험회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 되어, 보험회사들은 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연락처를 지우고 몸을 사리고 있다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 왕이 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엘리암이 들어오자, 사무엘은 그를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삼상 16:6)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삼상, 16:7)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속속들이 드려다 볼 수는 없어도, 평소 그가 하는 행동, 말, 친구들에게 하는 태도 등을 보면 그의 성격과 사람됨을 어느 정도는 짐작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실한 기독 청년(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은 결과 속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나, 진실한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진으로 흔들리는 침대 위에서

이민규 목사
헤드컬웨이제일장로교회



동(Plate Tectonics) 때문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거대한 판(tectonic plate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미끄러지거나 멀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혹은 화산 활동이나 단층 활동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 말은 지구가 움직이는 생생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금도 태양 주위를 시속 약 66,627 마일의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어김없이 뜨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지구와 우주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이크로 세상도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면서 에너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자의 움직임 속도가 약 시속 500미일입니다. 비행기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뿐 아니라 모든 물체는 정지된 상태가 아닌 매우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물질계도 우리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에 잘 감지되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듯 보이는 지구와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움직임 중 하나인 지진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마음을, 정말로 살아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진정시키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면서 에너지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자의 움직임 속도가 약 시속 500미일입니다. 비행기 속도만큼 빠른 속도로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뿐 아니라 모든 물체는 정지된 상태가 아닌 매우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물질계도 우리 감각으로 감지되지 않지만 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각에 잘 감지되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듯 보이는 지구와 물질의 최소 단위 원자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움직임 중 하나인 지진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마음을, 정말로 살아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진정시키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움직임 중 하나인 지진을 경험하고 깜짝 놀란 마음을, 정말로 살아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진정시키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전화번호 02-739-8119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社說

‘자유 민주주의’ 봉괴, 그 다음 차례는

3.1절 제106주년인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합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대학로, 강남 일대에서 동시에 탄핵 반대집회가 개최되었고, MZ세대부터 중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국민 수백만 명이 모여 일제히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3.1만세운동은 일제에 침탈당한 주권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으킨 운동이다. 3월 1일 전국적으로 개최된 ‘세이브 코리아 비상구국기도회’ 등 여러 보수단체가 주도한 대통령탄핵 반대집회 또한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는 의식있는 국민이 광장에 모여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신념이 106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결과다.

106년 전 3.1만세운동을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서울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높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지도자가 과반수를 차지했을 정도로 기독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오늘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든 것도 기독교 지도자들이다. 이들의 구국 신념과 결단이 전한길 강사, 그라운드C 등 크리스천 유명 인사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성세대들 뿐 아니라 젊은 이들까지 광장에 모여들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가 이런 거국적 구국 운동에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누군가는 광장에서 외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각자의 본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위중한 정치적 격변기에 교회가 침묵하고 몸을 사리는 모습으로는 웃날 예언자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고 자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합한 목적이 경제적 수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인 신도(神道)로 우리 민족의 영혼을 완전히 잠식해 ‘내선일체’(內鮮一體)로 하려는 큰 목적이 있었다. 그것이 천황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밀어닥친 위기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빚어진 국적 실종과 경제적 손실로 단순화해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라면 나무만 불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하지 않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현정 질서를 붕괴시키는데 악용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최소한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내란 세력이고 내란 주동자들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선대에 이룩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친중·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걸 그대로 지켜보느냐 둘 중 하나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신앙의 자유 차례다. 그때 가서 침묵한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승만: 덜레스 회담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41)

이 호 목사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제8장 한미 동맹,
한반도 평화의 조건

이승만 - 덜레스 회담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이승만의 약속에 따라, 미국은 휴전 협정에 박차를 가했다. 반공 포로 석방에 대해서 미국을 거세게 비난했던 공산 측도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신속히 휴전에 동의했다. 결국 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은 7월 27일 휴전으로 정지되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이승만 - 로버트슨 회담의 결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가 8월 4일 한국을 방문했다. 덜레스와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다. 조지 워싱턴과 프린스턴 동문이었고, 덜레스가 전쟁 발발 직전에 국무부 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었다. 덜레스는 음으로 양으로 한국과 이승만을 도와주었던 인물이었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이 즉각적으로 참전하도록 유도했다. 이승만 제거 계획인 에버레디 작전을 놓고 대통령 및 군수부와 회의를 할 때도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편에 섰다. 미국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이 대통령을 체포하면, 그것은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여러 면에서 고마운 인물이다.

6.25와 덜레스의 인연은 참으로 짚었다. 전쟁 발발 일주일 전에 한국을 방문했고 국무장관이 되어 휴전 협정을 성사 시킴으로써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6.25 전쟁이 덜레스와 함께 시작되어 그와 함께 끝난 것이다.

이승만과 덜레스의 회담은 사실 그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이승만이 포로 석방이라는 폭탄을 던지자, 국무장관 덜레스가 이승만을 초청했다. 이승만은 바빠서 갈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덜레스에게 오라고 했다. 한국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의 명줄을 실제로 쥐고 있던 미국 국무장관에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 당신이 비행기 타고 오라고 했으니, 대단한 배짱이다.

덜레스 역시 비상 상태에 빠져있던 위생팀을 비울 수 없어서 특사 로버트슨을

파견했다. 그리고 휴전 협정 이후 결국에는 덜레스가 제 발로 찾아왔다. 회담이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이승만의 판정승이었다.

덜레스도 그 점을 인정했다.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나 자신이 직접 이곳으로 온 것은 광장한 의미가 있소. 강대국의 국무장관이 약소 국가 대통령을 만나 자기들의 정책을 약소국의 정책과 합치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 건너 찾아온 것은 역사를 통해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초의 사건이오.”

이승만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줄곧 성취해왔던 그 ‘최초’를 여기에서 또 한 번 획득했다.

솔직한 덜레스에게 이승만도 솔직히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 민족 전체의 생명과 희망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달려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염려한 현실에서 미국은 ‘한국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솔직하게 토로했다.

덜레스와 이승만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큰 틀에서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에 있어서는 차별하게 맞부딪쳤다. 서로를 높이 평가하고 내심 존경하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국가를 위한 충성심도 그에 못지않게 강했다. 기본적으로 이승만은 더 많은, 확실한 지원을 요구했고 덜레스는 이만하면 충분하며 그만금도 미국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이고 양보라는 입장이었다.

두 사람의 견해에 불꽃이 된 것은 일본 문제였다. 이승만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불만이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크게 부흥한 것도 못마땅했다. 36년 간이나 우리를 좌취했던 일본이 우리의 비극을 통해서 돈을 벌고 다시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이승만에게 참을 수 없었다.

이승만은 일본의 오랜 침략주의 근성을 지적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Japan Inside Out』를 저술했던 인물이다. 그가 일본의 재침략을 우려한 것은 당연했다.

이승만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통해서 공산권 못지않게 일본의 재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덜레스는 미국 역시 일본이 다시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을 제안했다.

두 사람의 회담을 자켜본, 한국과 미국 양측의 문화와 정치에 모두 정통한 로버트 올리버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 중에서 이 두

정치가는 공산주의 위협의 성격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뜻을 함께한 까닭에 이 장면에 슬픔과 기구함이 짙게 깔려있었다. 이 두 사람은 덜레스의 표현대로 전쟁 없이 소련

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절묘한 부전승(不戰勝)의 전략’을 쓸 줄 아는 도박사의 기질을 가진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기질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깊은 데가 많았다.

두 사람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높았다. 두 사람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정과 상호 존경 속에 이별을 고하였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예정대로 추진되었다. 8월 8일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와 한국 외무장관 변영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이 역사적인 조약은 1953년 11월 17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가능케 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전문과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약은 제 1조에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은 양국이 합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영토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국제적 분쟁을 유엔의 정신에 따라 가급적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제 2조에서 상호 협의 하에 단독이든 공동이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했다. 제 3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각자의 헌법상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 의회가 거부하면 미국은 참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4조에서는 한국의 전쟁에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하여하고 미합중국은 수락한다”라는 조항이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만약 공산군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참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승만이 반공 포로 석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로버트슨, 덜레스와 길고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던 이유가 바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미국 참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즉각적이고 자동적인”이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 상 자동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지키려는 이승만의 노력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제 5조는 양국의 한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고 그 비준서가 교환된 다음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6조는 조약은 한미 양국이 원하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무기한 유효한 조약에 의해서 1953년 이후 이 땅에서는 전쟁이 없었다. 5천년 역사상 천번의 침략을 받았고, 조선 말기 이후로는 13년마다 한 번씩 큰 전쟁을 치러야했던 이 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70년간의 긴 평화”가 찾아왔다.

이승만의 미국 방문, 그 당당함에 관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구체화된 한미동맹은 이승만의 워싱턴 방문과 정상 회담으로 마무리되었다. 1954년 7월 26일, 이승만은 워싱턴의 내셔널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까지 영접을 나온 낙수 부통령의 환영사가 끝난 뒤, 이승만은 15분의 즉석 연설을 했다. “워싱턴의 겹친들 때 문에 한국은 통일되지 못하고 공산 세력의 위세만 과시해주었습니다.”

‘동맹’을 하려 와서 비판을 날렸으나, 이승만 특유의 행동이다. 그것은 한미 양국의 정상 회담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예고탄이었다.

미국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서 양국의 국가원수는 환영사와 답사를 주고받았다. 아이젠하워는 육군 참모학교 시절에 들은 강의를 인용하며 “모든 세상사의 특징은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문명화에서 통용되는 규칙까지도 결국에는 변하고 만다고 강조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주미 한국 대사관의 서기관 한표육은 아이젠하워의 연설이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한때 완강하게 남북통일을 부르짖은 이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해서 현 상태 유지에 동의하도록 하려는 아이젠하워의 속셈이 내비쳐졌다는 것이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나,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변은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였다.

이승만은 답사에서 먼저 미국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베풀어준 원조와 후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원조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장병 하나하나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미국에서 온 장비로 무장한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인들의 용기와 투지를 친양했다. “한국민의 용맹에 찬사를 표하며 우리는 그런 국민임을 자부합니다. 한국인은 훌륭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병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밝혔다. “공산당이 우리 강도를 점령하고 있는 한,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각오임을 밝혀둡니다. 나는 미국 독립 전쟁 직전 그 유명한 패트릭 헨리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그 정신이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

7월 28일에는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이승만의 연설이 있었다. 아시아의 국가 수반으로서는 처음 있는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이었다. 그 자리에 미국의 행정, 사법, 입법의 3부 요인이 모두 참석한 것도 특별했다. 이승만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당 층은 방청객 수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 입장 카드를 발부했다. 현장에 동행했던 우리 외교관 한표육은 “대법원 판사 전원, 워싱턴 주재 외교관 전원, 육해공 3군 수뇌부 전원”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마틴 하원의장은 “미국 국민들이 경탄해 마지않는 불굴의 자유 투사”라는 멋진 멘트로 이승만을 소개했다. 이승만의 연설은 미국 국민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다. 그중에 특별한 대목이 있다.

“나는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을, 남편을, 그리고 형제를 우리가 암담한 처지에 놓여있을 때 보내주신데 감사합니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 군인들의 영혼이 한 국의 계곡과 산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연설문은 이승만이 직접 작성한 것 이었다. 그의 진실 어린 감사와 내세(來世)에 대한 분명한 기독교 신앙이 표현되어 있다. 두 나라 젊은이들의 영혼이 한국의 깊은 계곡과 높은 산꼭대기에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심금을 울린다. 미국인들의 가슴에도 여운이 전해져서, 이 대목에서 처음으로 우례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이승만의 연설은 이어졌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쳐 싸웠으나, 현명치 못한 휴전으로 한국 전선은 포화를 멈추고 일시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적이 이 기회에 무력을 증강하고 있고, 제네바 정치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난 만큼 이제 휴전 종결을 선언할 시기가 왔습니다.”

공산군의 비행기는 우리나라 국회까지 오는 데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서울보다 워싱턴에 더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크렘린의 최후 목표입니다.”

여기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승만의 연설은 명백히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그의 연설은 점차 강경해졌다.

“그렇다면 미국과 우방들은 지금 수소 폭탄을 만들고 있는 소련의 공장들에 폭탄을 투하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거세당한 소련을 우두커니 서 있어야겠습니까? 세계 자유

인이 생존하는 길은 평화가 없을 때 부려 운 눈치로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력 균형을 세우게 흔들어 공산 층이 우리를 섬멸시킬 무기를 감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는 별로 없습니다. 수년 내에 소련은 미국을 정복할 방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을 개시할 때이며 장소는 한국 전선입니다.”

이승만의 탁월한 표현력과 유창한 영어 실력은 그만큼 미국 정부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날카로운 용어와 표현으로 결국에는 미국 정책이 잘못되었고 대대로 가다가는 큰일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써 휴전을 맺어놓았는데, 다시 전쟁을 재개해야한다고 이승만은 외치고 있었다. 이승만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우우려는 용기만 있으면 자유세계는 공산 세계를 타도하고 남을 만한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유를 위한 싸움의 선봉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강경한 주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세계를 강경하게 만들었고 연약함이란 바로 노예가 됨을 뜻하는 무서운 세상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평화는 결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반으로 남아있는 세계에서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다.”

로버트 올리버는 이승만이 40분간 연설하는 동안 박수에 의해서 연설이 중단된 횟수를 세어보았다. 모두 33번이었다. 연설을 마친 이승만은 미국의 정부와 군부, 언론계 지도자들 모두의 기립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도서문의 010-6801-8933

성민원
사단법인

성민원 27주년 기념

2025.
03.19.
성민
비
문화
국
제



주최·주관 | 성민원 031-397-2051

후원 | 대전예수교장로회 군포제일교회 군포농업협동조합 산본제일병원 월스기념병원

협력 | 기독일보 C channel GOODTV



초대합니다

가수 윤향기
출연
올리엔젤스
양상불 토프
마리나타중단
송암어린이합창단

상담치유 봉사 하여 드립니다.

심리적으로 사기 당하는 병 마음의 병 치매와 건망증 기억상실증 스트레스 근심걱정 억압과 분노 공포장애 우울증 노이로제 정서불안 불안신경증 신경과민증 초조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집중이 안되고 안절부절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울증 울화증 핫병 불면증으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병 뒷골이 땅기고 손발이 저리고 입이 자주 마르고 예민하여 잘 놀라는 병 심리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속 시원히 상담하여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의학지도교수 (MANSON)
목사 이종운
문의: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토지: 2,756m² (833.69평)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낫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양봉선교회 양봉 무료 교육

목적 농어촌 목회자에게 무료 양봉교육을 통해서 교회자립과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상 농촌, 어촌, 초교파 목회자

접수 3월 10일 -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010-8813-0191 문자(지역, 교회, 목회자 성명)
042-633-8311 유선

인원 접수순 10교회(1교회 목회자 부부도 가능함)

설명회 25년 3월 21일 오후 2시

장소 대전총신평생교육원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교육 매주 토요일 예정

특전 교육비 전액 장학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가능함)

주관 한국양봉선교회

기타 전화 상담 사절화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림.

문의 042-633-8311, 010-8813-0191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GOSKA 보온 발열조끼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특별할인
파격행사

개인 및 단체주문 환영



파격행사가 ▶ 98,000원 (밧데리 포함)

색상 :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 90(S), 95(M), 100(L), 105(XL), 110(XXL)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온도조절 3단계 ▶ 고온(적색) 45°C / 중온(백색) 35°C / 저온(청색) 25°C
※ 배터리 시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 태영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종
기능성
건강
기능식품
세계화된 고기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 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가정을 다시 신앙 양육의 중심지로 되돌리자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이다'

2012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주최 한 세페드 컨퍼런스에서 보디 바우컴이 설교 하는 것을 처음 봤다. 그는 애비소서 5장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의 견고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했는데, 이마에서 흐르는 땀과 눈에서 흐르 는 눈물이 뒤섞이면서 모든 청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자신 이 십 대 불교 신자 미혼모 아래서 자랐고 아내와 자신을 둘러싼 25쌍의 가정 중 3쌍을 제외한 모든 가정이 이혼으로 파괴된 배경에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신실하신 신랑이 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는 잠비아 루사카에 있는 아프리카 크리스천 대학교의 신학부 학장으로 섭기고 있고 2015년까지는 텍사스 스프링에 있는 그레이스 패밀리 침례교회의 목사로 섭기기도 한 바우컴은 성경적 결혼과 가정 사역에 유독 관심을 두고 그 비전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목사이다.

2007년에 "Family Driven Faith"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올해(2024)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이다>라는 새 이름으로 디모데 출판사를 통하여 국내 소개됐다. 반역서의 부제는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면, 언제나 귀하게 된다"인데, 원서의 부제가 책의 핵심에 더 가까운 것 같다: "Doing What It Takes to Raise Sons and Daughters Who Walk with God" 인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들과 딸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이 책은 가정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핵심 사역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반복하며 강조한다. 매우 금진적인 주장까지 나아간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기존의 연령별 성경학교나 소그룹을 과격적으로 없애고 가정 통합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무시하지 않지만, 험스쿨의 장점을 피력하기 원하는 바우컴의 의도를 예민하게 파악한 독자는 집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가족 통합적 모델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가족과 함께 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훌로 출석하는 학생이나 성인은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험스쿨과 가족 통합 교회에 관한 주장은 이 책의 말미에 나온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정이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바우컴은 오늘날 각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인 묘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하여 자녀가 마땅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가정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계속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말로만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 달에 절반 가까이 외부 행사로 집을 비우고 교회와 각종 기독교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정말 거절하기 힘든 큰 규모와 영광스러운 설교 요청을 받았지만, 가정을 위하여 더 작은 직책으로 옮기기도 하고, 요청을 거절하거나 직책을 내려놓기도 했다. 9명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또 그들을 신양적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결코 우선순위 바탕으로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이자 남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신양 양육의 본부로 삼을 수 있을지,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이 신양 양육의 기능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거의 직장에 매여있고, 엄마도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녀들이 어렸을 땐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부모가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자녀가 자라면서는 부모가 시간이 나도 자녀가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못 누린다.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양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가 힘들다.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아직 덜하지만, 세속적인 교육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점점 멀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바우컴이 가진 배경보다는 그때도 나은 편이지 않은가? 우리도 핑계할 수는 없다.

바우컴은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맡기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교회는 돋는 기관이고 가정이 주요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말한다. 어찌면 독자는 이 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질 것이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다. 뭔가 급진적인 변화에 앞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우컴의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몇 가지 완전히 동의하기 힘든 제안이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금진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수혜를 자녀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평교회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신명기의 가르침을 매우 엄격한 방식으로 선전한 현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과거에 어떤 했으며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매우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들의 계승자들인 소위 신명기 사가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신화와 그것들과 관련된 제왕 이데올로기 를 억압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왕정과 성전에 관해 남아 있는 두 개의 설명 가운데 하나(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즉 신명기 역사)를 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텍스트들을 읽을 때 개혁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왕들에게 아부하지 않았으며, 성전의 특정한 측면에 관해 기록하지 않았다. (우리는 뒤에서 이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의 관점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바로 그 관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이 기록하지 않기로 한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과 그것의 종교에 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다른 자료들이 있으며, 우리가 고대 왕들을 소환해 내려면 이 자료들을 살펴봐야 한다.

마가렛 바커 '하늘의 문'



'영접하고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사용된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예수님이의 죄인과의 식사가 보여 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계속되어야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식사 모습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 하여 터부시하던 그 '아무나와 기꺼이 식사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명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와 달랐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악한 자를 동료로 여기며 품는 것이 진정한 명예였다. 15장은 예수님이 '아무나'와 격의 없이 어울리신 이유를 읽은 양(3-7), 동전(8-10), 아들(11-32)의 세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다. 그 비유들은 '잃어버린' '찾은' '기쁨'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6, 9, 24, 32).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사람과 교류를 이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히 관계를 단절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떠나 하나님께 아무런 이익이 없을 존재들이 '잃어버린' 자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내어 벗으로서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제 세 비유를 통해 '아무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왕인성 '누가복음, 눈 그리고 마음으로 읽기'



장로교 개혁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전형적인 공격이 있다. 머리는 뛰어난데 가슴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감정 없는 금욕주의자이며, 도무지 바뀔 줄 모르는 별종이고, 얼음장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근한 모욕에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교회에서 질서의 반대는 거칠없는 자발성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혼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평화보다 혼란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고전 14:33을 보라). 하나님은 절대로 신학과 송영(doxology)이 맞서게 하거나 머리와 가슴이 맞서게 하지 않으신다. 데이비드 갈런드(David Garland)는 이것을 귀에 쑥 들어오게 표현했다. "열정의 성령은 질서의 성령이기도 하다."

조너선 매스터 '개혁 신학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있나요?

신간

탁월한 변호사이자 기독교 작가인 레베카 맥클러플린은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고, 그 이야기가 생각보다 믿을 만하고, 기대보다 훨씬 좋은 이유를 설명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부활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온 우주의 하나님여 여러분과 나를 위해, 지난 가운데 태어나서 돌

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무덤을 넘어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걸까? 결국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셨는지조차 의심한다. 요약하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실제 말씀과 행동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건 발생 한참 후에 기록한 글

이 아니다. 예수님과 어디든 함께 다닌 이들이 살아 있는 동안 썼으며, 수십 군데의 마을과 동네에서 수백 명의 병자들을 치유하고 수백 번의 설교를 한 인물에 대해 암죽된 전기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어느 합리적인 역사적 기준으로도, 복음서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문서이다. 사실, 다른 고대 인물들의 삶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안내서로 여기는 많은 문서보다 훨씬 더 나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미중 기술 경쟁과 중국 경제의 변화

'두 얼굴의 중국 경제' 개정증보판 출간… 중국의 미래는 어디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양면성을 심층 분석한 『두 얼굴의 중국 경제』(솔파워)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중국 경제가 처한 기회와 한계를 조명하며, 미중 갈등이 중국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탐색한다.

책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 '피크 차

이나와 '차이나 쇼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피크 차이나'는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었으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미국을 넘어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반면, '차이나 쇼크'는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에 지속적인 도전 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중국 경제학 박사 출신 언론인으로, 저널리즘과 학

문적 접근을 결합해 최신 중국 경제 동향을 분석한다. 그는 중국 경제의 내부 구조적 문제와 미중 갈등이라는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현재 중국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설명한다.

책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중국을 단순히 '강한 중국' 혹은 약한 중국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의 자본재 국산화 정책과 '홍색 공급망'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흐름을 주목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중국 자본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내라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맛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선교회)

매일묵상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예레미야 애가 3: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려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은 “여호와가 부분적으로 나의 기업이라”는 뜻도 아니요 “여호와가 내 기업 안에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영혼의 기업의 총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의 은혜나 그의 사랑이나 그의 약만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고 우리는 그를 우리의 기업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업을 먼저 택해 주셨음에 틀림없다는 것.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자신을 위해

우리의 기업을 절대 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의 뜻에 따라 정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으로 불태우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도 그 답례로 하나님을 택한다네.”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고도 남을 만큼 충족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족한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스스로 족한 분이라면 우리



를 위해서도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의 소욕을 다 만족시켜 준다는 것

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인간

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충족되었다고 생

각하는 순간 또다시 무언가 부족해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라고 울부짖

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업되신 하나님 안에

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시 73:25)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그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해주는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천국으로 날아가 그곳에 거합니다.

“내게 줄로 채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 16:6).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백성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 줍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슥 8:23)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듭시다.

찰스 스펠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1)

이 글은 에드워즈 목사님이 로크의 인식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기독교 인식론으로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참고 - 에드워즈의 존재론은 뉴턴과 연결된다면, 인식론은 주로 로크와 캠브리지의 신플라톤주의자와 연결된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로크의 인식론을 참고하여, 인간의 신 인식론은 감각적으로 주입된 성향, 경향성이라고 증명한다.

로크 - 타블라 라사 --- 감각 --- 사물 --- 단순관념(감성적 지식) --- 복합관념(이성)

에드워즈 - 인간의 마음 --- 감각 --- 하나님(성령의 주입) --- 성향, 경향성(감성, 이성)

〈로크와 에드워즈의 인식론 비교〉

에드워즈는 인간 자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물론 사변적으로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해주셔야 하나님을 알(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역사

하신다. 로크를 참고해보자. 로크는 우리의 마음에는 본유관념이 없다. 어떤 실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대신 감각이 있다. 이 감각에 1차 성질이 도장처럼 찍히면 단순관념이 생기고, 이것이 복합되면 복합관념이 생긴다. 즉, 인간의 마음은 수동적이지, 능동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드워즈는 인간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역사하신다. 마음에 역사하실 때, 성향과 의지가 발생한다. 성향과 의지란, 이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성향과 의지란, 이미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1차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1차 성질을 본유관념으로 볼 것이나, 감각으로 들어오는 외부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빠지고 말았다. 또한 단순관념이 어떻게 복합관념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내적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경향성의 개념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과 관계성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세계는 하나님의 경향성의 재현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빠르게 규명해냈다.

이 논문은 비교적 초기에 쓰여진 것 같다. 로크와 비교한 부분까지는 잘 되

었지만, 에드워즈 목사님의 경향성 개념이 설명되지 않았기에, 에드워즈의 신 인식론의 설명이 부족하다(이에 관해서 이 상현 교수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학적 신학〉을 참고하면 좋다). 또한 중도 언약을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설명한 부분은 잘못 설명한 것 같다. 에드워즈는 중도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완전 언약을 따랐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이경직(천안대), 기독교 철학 전공

I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는 18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탁월한 철학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은 일반인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프랑스 철학자 리옹에 따르면, 그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이다. 또한 에드워즈가 식민지 상태의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럽 대륙에서 태어났으면 리아프니

츠(Leibniz)와 칸트(Kant)를 잇는 철학자로서 불멸의 체계를 창시했을 것이다. (G. Lyon, *L'Idéalisme en Angleterre au

xviiie siècle* (Paris, 1888), 406면 이하)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도 불린다. 당대에 물려받았던 기독교 신학의 전통을 새롭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의 바탕에는 예일 대학에서 공부한 데카르트 주의, 존 로크의 인식론과 아이작 뉴턴의 광학, 캠브리지 플라톤 학파의 사상 등이 깔려 있었다. (S. H. Daniel, *The Philosophy of Jonathan Edwards: A Study of Divine Semiotics* (Bloomington/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68면)

또한 에드워즈는 예일 대학에서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을 통해 영국의 새로운 철학을, 특히 존 로크의 생각을 배웠다. 그는 로크의 *인간 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을 읽고 보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이 시기는 그가 회심을 경험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종교적 진리의 척도가 기습으로 느꼈느냐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이 확신을 로크의 인식론을 통해 설명하려 했다. (Ibid, 460면; H. L. Bond, “Edwards, Jonathan (1703-1758),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and IX (Berlin/New York: de Gruyter, 1982), 299면, 301면)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뇌치유상담 공감과 온정의 뇌, 전대상회의 기능이다(1)

손매남 박사의
당신의 뇌는 안녕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
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라”(롬 12:15)
전대상회는 변
연계와 전전두엽
사이에 있는데,
신경학적인 심장

으로서 신에게 다정함(Loving)을 느끼는
뇌의 부위로 알려져 있다.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겁을 먹는 충동을 억제한다.
전대상회는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
과 관련된 필수적인 많은 기능을 수행하
며, 또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감지하
고 갈등을 다루는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 좌책
감이나 분노를 감소시키고 학습이나 기
억, 집중적인 주의에 관여하기도 한다. 명
상이나 관상기도는 전대상회의 활동을
자극한다.

그러나 관상기도나 깊은 명상(북상)은
두정엽의 활동을 감소시키며 신과 합일
화를 이룬다. 오순절 신자들이 방언을 하

거나 성령체험을 하면 두정엽 활동은 증
가된다.

전대상회에는 폰 에코노모 뉴런(Von
Econo Neuron)이라 불리는 방주형세
포(Spindle-shaped Cell)가 집단을 이루
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비롯, 유인원, 그
리고 고래에서 발견된다. 이 뉴런들의 연
결고리는 뇌의 다른 부분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 느낌, 그리
고 행동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발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이 뉴런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
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도한
다.

방주형 세포는 출생 후 출현하고 경험
의존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관계의 생
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매혹적인 세
포이다.

여린 시절 방치나 스트레스 외상은 방
주형 세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뉴런
들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사랑, 소통, 그리
고 감각 및 지적 자극이 풍부한 데 자신
을 노출시키면 폰 에코노모 뉴런과 전족
대상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전

대상회의 활동을 자극한다. 그래서 영적
수행은 전대상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며 사회적 인식과 온정을 강화시킨다. 또
한 폰 에코노모 뉴런은 알츠하이머병과



명상과 영적수행은 전대상회를 자극하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며, 의식적으로 더 큰
목표와 평온함을 이루게 한다. ©pexels

다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퇴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장애에 있는 환자들이 하루
에 단 12분간의 명상을 수행한 것만으로
도 자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는 영적수행이 희귀한 이 영장류 뉴런기
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대상회는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활
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는 일종의 반
침점 역할을 한다. 공포를 일으키는 편도
체를 포함하고 있는 감정중枢의 변연계



전대상회의 뉴런들의 연결고리는 우리의 사고, 느낌, 행동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발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뉴런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도한다. ©stockcake

는 논리, 이성,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이 증가되면 전두엽에서 활동이 감
소된다. 따라서 분노, 또는 불안해지면 논
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인
지기능이 억제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
면 전대상회의 활동은 멈추게 되고 공감
과 직관력은 떨어지고 타인이 어떻게 느
끼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전두엽이 활성화
되면 전대상회를 자극하는데 이것이 편

도체 활동을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논리
와 이성의 분노와 공포를 가라앉힌다. 이
러한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가상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것
과 같다.

그러나 전대상회가 손상을 입게 되면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합목종이 생길 수
있으며 모성행동이나 표현력이 감소되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성이나 과잉행동
을 하게 된다.

전대상회가 뇌졸중, 병변 등으로 손상
되거나 심지어 지나치게 흥분되면 모든
것이 균형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명상과 영
적수행과 같은 내적 인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명상과 영적수행은 전대상회를 자극
하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며, 이를 통해 의
식적으로 더 큰 목표와 평온함을 이루어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전대상회
회로가 강화되면 불안, 우울증, 그리고 분
노를 억제할 수 있다. <계속>

◆ 손매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경기대 뇌심리상담전문연구원 원장
미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국제뇌치유상담학회 회장

건강상식

이같이 방지장치 잘써야 효과

이 같이는 치아의 본연의 기능인 음식
을 씹는 저작기능과는 동떨어진 부기능
적인 습관(parafunctional habit)으로서,
이 악물기(clenching)와 이를 가는 현상
(bruxism)을 모두 포함한다.

이 같이는 대부분 수면 중에 일어나지
만 특정 신경성 질환이나 운동장애 질환
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 같이의 심각성은 평상시 음식을 씹
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과도한 교합력
이 치아와 턱관절에 가해질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런 이 같이로 인해 치아가 헤아져
닿게 되는 교모 현상, 양측성으로 나타
나는 교근 및 측두근의 근육성 통증, 두
통, 턱관절통, 아침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개구제한 등의 치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이 같이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언보다 환자 본인이 이를 갈거나
나 이를 암무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인식
하고, 적어도 낮 동안이라도 이런 부기능
을 하지 않도록 주지하여야 한다. 또, 평

상시 저작근육을 이완시키도록 꾸준한
운동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합안정장치(splint)이 같이 방
지장치, 나이트가드) 치료이다. 수면 중
에 이 같이가 일어나는 환자의 경우, 치아
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
된 방법이 교합안정장치이다. 그러나 이
장치를 착용한다고 해서 이 같이가 영구
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의의는 이
같이나 이 악물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과적인 문제점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같이로 인해 야기되는 두통이
나 턱관절 질환, 관절염 등을 경감시키는
데 있다.

또한, 이 같이 방지장치로 점진적인 치
아교모, 치아파절, 치수염을 방지하는 효
과를 얻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이 같
이 장치는 턱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치아
를 보호하며, 거상근을 이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사용하는
경우 교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되도록 야간 수면시간 정도만 착용하는
방법도 교합안정장치이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마우
스피스 같은 말랑말랑한 이 같이 방지장
치인 연성장치(soft appliance)는 영구지
가 맹출 중인 경우나 교합안정장치 장착
전 일시적인 사용을 제외하고는 별로 권
장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몇몇 연구에서
이런 연성장치가 오히려 이 악물기 습관
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톡스 주사 요법이다. 이 같이 방
지장치를 사용해도 장치를 파질시킬 정
도로 심한 이 같이나, 중추성 장애에 의
한 이 같이의 경우 이 같이 활성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교근 또는 측두근 같은
이 같이 시 강하게 수축 작용하는 저작
근육에 3~6개월마다 보톡스를 주사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류성용 뉴연세치과 대표원장

온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교회오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 (3)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이 이미 죽었을지라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은 분명한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깨닫게 하여 내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정죄 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내가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지요 왜 깨닫게 하시나요 정죄 하기 위해서는 깨닫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보면서도 신령한 세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가 거쳐 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왜 엘리야는 다락방에 거했을까요 물론 아래층이 있고 위에 층이 있으니까 다락이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이 항상 다락에 있어야 됩니다.

다락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기 는 살면서도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에 있는 생활이라니라 엘리야는 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락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 몸 위에 세 번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 세 번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한 번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엘리야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을 그 아이에게 주게 하십니다.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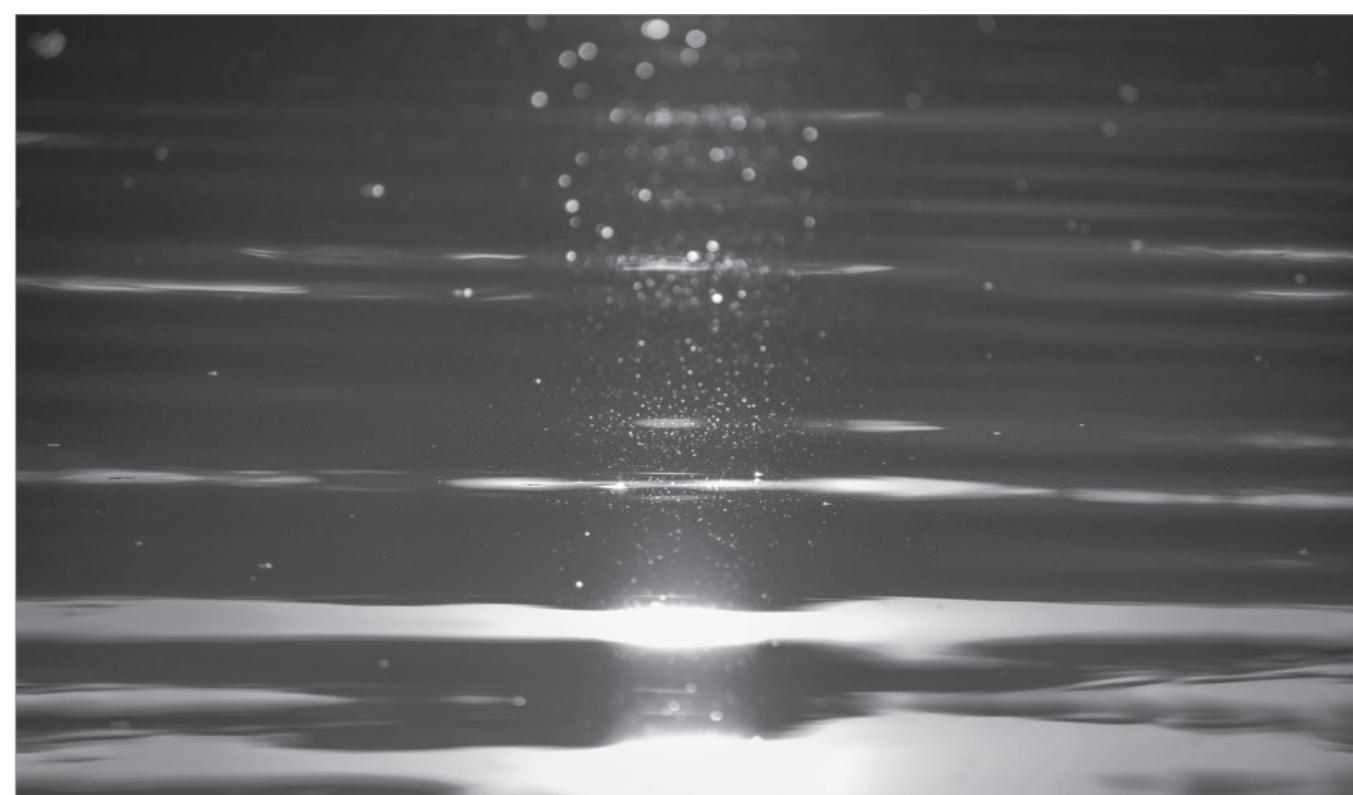
주게 하셨지 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주게 하신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을 못 낳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세 가지 생명이 있으니까 세 가지 생명이 살아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엘리야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엘리야에게 무슨 세 가지 생명이 있느냐 엘리야 속에는 태초의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이 엘리야 속에 있습니다.

그리면 그 영을 주실 때에는 미리 아신 자로 지으심 받은 택자가 된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롬8:29)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로 구원해 주신 구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애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고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로 지으셨기에 이제 나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고(요1:50)

세 번째로는 구원해 주신 그 영에다가 육신으로 나에게 입혀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생명이나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영원한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영광 세 가지 생명이 엘리야에게 있으니까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오늘 교역자들에게 세 가지 생명이 있어야 교인들을 살릴 수 있고 교역자들이 이 세 가지 생명이 없다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 참고 ◆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집에 가서 있을 때에 그 아들이 또 죽었지요 그런데 몇 번 엎드려 기도 했나요 엘리야는 세 번 엎드려 기도 했고 엘리사는 두 번 엎드려

기도 했습니다(왕하4:34-35)

왜 그러느냐 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가 기기 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가서 기도 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 만 있으면 사느니라 그래서 두 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 했나요 하나님 이여 이 아이가 죽었사오니 살려 주시옵 소서 육신 살려 주실 것을 구했나요 혼이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 했나요 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몸 셋이 합하여 사람을 이루고 있는 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아들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영에다가 육신을 입혀 주실 때에 혼도 주셨습니다.

혼은 육신 입혀 주실 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혼은 영으로 보게 하신 것을 깨닫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비둘기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 것 그게 혼입니다. 마음의 깨닫는 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서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따로 데리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얼마쯤 나가서 기도 하셨다 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던질 만큼 나가서 하셨지요 왜 돌던질 만큼이라고 했느냐 끼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도리어 돌을 던지는 자가 되고 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럼 처음부터 잠이나 자자하고 잤을까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몇 마디 하다가 잠들었지요 그러면 기도할 때부터 잠꼬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잠꼬대했느냐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들의 믿음대로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선생님 예수님 오늘 꼭 유대 나라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편에 앉고 하나님은 원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과 야고보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꼬대입니까? 기도입니까? 잠꼬대들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혼이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시는 것을 깨닫고 내게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할 것이 아닙니까? 그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혼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다는 말입니다. 영광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으로 살아났느니라 몸이 살아야 사는 것이고 열매가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열매 없는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났지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먼저 보았는데 지금 물결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물위로 걸어오십니다(막6:49) 〈계속〉

창골산 봉목사 제공

이야기하늘나라

1

멸종된 공룡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 들이 지구에 존재하기 전에 파충류에 속하는 맘모스와 공룡 같은 큰 짐승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짐승들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멸종되어 빠 만 여기저기에서 발견될 뿐입니다. 그 래서 뉴욕 박물관에 가 보면 옛날의 큰 공룡의 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하게 보이던 짐승 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리와 개는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어떤 종류가 성

질이 변하여 온순해져서 개가 되었습 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포악한 이리 가 흔하지 않습니다. 흔히 동물원에 가야 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변해서 온유하게 된 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얼른 듣기에는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원리를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리와 같이 포악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도 온 세계를 끌까지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답게 제공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교회 성가대원 모집



대부분의 성가대 지휘자는 성가대가 어려워 하면 활력 있고 번창할지에 대해 고심한다. 이 고심은 새로운 성가대원을 모집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신선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며 때로는 사역 성장을 돋기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는 것이 자루할 수 있다.

다음은 사역에 투자하고 중요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이다.

일대일 교류

누군가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선물이다. 성가대에 개인적으로 예비 성가대원들을 초대하는 것은 매우 귀중하다.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은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다.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사역의 맥락과 예배에서 합창단의 역할에 두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더 깊은 수준으로 가져온다. 사람들에게 자신과 그들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집방법

모든 대원이 한 명씩 데려오기 – 모든 성가대원이 연습에 최소 한 사람을 데려오도록 연습 날짜 또는 요일을 지정한다. 연습 시간이 재미있게 느껴지도록 계획하고, 열심히 지휘자의 직분을 감당하여 성가대원들(또는 예비 성가대원들)이 성가대를 통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가지라. 발성연습 등의 위엄성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연습을 위해 모든 요소의 균형을 유지하라. 마지막에 친목을 도모하고 신규 대원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교제 시간을 가지라.

방문 – 언젠가 작곡가 Hal Hopson은 자신과 그의 아내가 모든 성가대원과 예비 성가대원을 어떻게 심방하는가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훌륭한 성가대 리더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나는 이 상호작용이 사람들을 성가대에 4주에서 6주 동안 함께 친양하고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대원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성가대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관계 – 교회의 사역자, 교인 및 성가대원과의 좋은 관계는 새로운 성가대원 모

집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당신과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역자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들에게 당신이 제공하는 다양한 선감에 대한 피드백과, 예비성가대원이 회중들에 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사역자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성가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필수적이다. 당신이 성가대원 모집을 위해 모든 교인을 직접 만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며 교제해야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방문 – 언젠가 작곡가 Hal Hopson은 자신과 그의 아내가 모든 성가대원과 예비 성가대원을 어떻게 심방하는가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들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훌륭한 성가대 리더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나는 이 상호작용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성가 연습 시간에는 의미 있는 교제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성가대 연습 시간 외에 소수의 성가대원들과 돌아가며 시간을 따로 내어 교제를 하는 것은 사역을 길게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을 따로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

다. 그럴 경우에 대화를 열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명확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소통 – 새로운 성가대원 모집을 위해 이메일, 문자 또는 카카오톡 및 교회 주보 광고를 이용하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는 성가대원들과 예비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대 참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인지 알리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마치 성가대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엇을 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해야 한다. 모든 대원들은 귀하고, 귀하게 여겨질 권리가 있다. 대원들에게 성가대 외의 다른 공동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우리와 함께 경험하도록 초대하여 그들이 귀한 동역자임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가대 연습 참여 기회 – 사람들이 성가대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 다양한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모두가 성가대 연습으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여 한다고 주장한다면, 많은 대원들이 그 시간에 자녀 양육이나 직장, 학교 시간으로 인해 연습에서 소외될 수 있다.

우리 친양 공동체에 여러 세대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대원들이 최대한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연습을 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현대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의 일부이다. 시대는 변하는데, 연습 시간 등에 있어 옛날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새로운

대원들이 우리의 성가대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울 수 있다.

성가 연습 중 양질의 자녀 돌봄 – 당신의 성가대에 젊은 세대를 원한다면 아기들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학생 연령대를 위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성가대에 따라 아이들 돌봄 인원이 두 명이 될 수도 있다. 영유아를 돌볼 사람과, 초등학생을 돌볼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성가대에 참여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이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준비해 오라고 격려하면 더 수월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만일 대낮에 성가 연습을 하는 경우에 이 돌봄 기회 제공은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에서 벗어나 노래를 부르는 1시간 30분은 대원들에게 단비와 같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성가대 연습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는 한두 명의 권사님들을 섭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섭김은 젊은 세대가 음악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음악의 질과 긍정적인 태도 – 행복한 성가대원과의 즐거운 시간은 고품질 음악

사역의 일부이다. 다양한 음악 스타일과 함께 고전곡과 현대곡, 빠르고 느린 곡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한 스타일로 움직인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선호를 강요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스타일을 일부러 할 필요도 없지만, 편안한 틀에 갇히지도 말아야 한다.

맺는말 – 당신은 성가대원들에게 목양의 의무가 있다. 나는 항상 성가대 뒤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는 모습을 상상한다. 나는 깃발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해야 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당신과 함께 친양하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명에는 음악적, 영적 목표를 함께 가지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의미 있는 예배를 인도하도록 대원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 Chris Titko

J.W.Pepper의 교회 편집자를 역임했다. Pepper에서 일하기 전에 Chris는 미국 전역의 다양한 교회에서 35년을 섬겼다. 그는 Westminster Choir College에서 종교 음악 학위를,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에서 합창 지휘 학위를 받았으며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더 밟았다. 현재 버지니아 주 포츠머스에 있는 Monumental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Lindauer Endowed Music and Fine Arts 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성가대에 젊은 성도를 유입하기 위한 제안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가대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교회 성가대는 더 젊은 층의 대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차세대를 위해 활기찬 성가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젊은 층의 합류는 단순한 성가대 부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대를 이어주고 하나님을 친양하는 음악에 신선하고 역동적인 선율을 율리게 할 기회이다. 그럼 어떻게 젊은 성도들을 성가대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나이를 초월한 음악 공동체

성가대는 어떤 한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가족 공동체이다. 젊은 층이 자신들이 존중받고 포용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휘자는 이 소속감을 유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목소리가 하나님을 친양하

는 데 적합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젊은 층은 활동하다가 자칫 기준의 나이 든 성가대원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맞춤형 선곡: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조화

젊은 층의 다양한 음악적 취향을 고려하여, 지휘자는 성가대원들과 협력하여 전통적인 찬송가와 현대적인 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레퍼토리로 구성해야 한다. 지휘자의 선곡을 반찬에 비유할 수 있다. 선곡들이나 성가대에게 편식을 하게끔 하면 안 된다. 늘 먹는 익숙한 반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음식, 전통적인 음식, 간편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도 영양의 균형이 잡힌 테이블이 중요하듯이,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리듬 주도적인 곡, 선율이 아름다운 곡, 현대곡, 전통곡 등 선곡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2주 정도 느린 곡을 불렀다면 그다음 주

는 빠른 곡으로 선곡하고, 단순한 화성이 주가 되는 편안한 찬양을 불렀다면, 그다음 곡으로는 좀 더 화려한 화성진행이 담긴 곡을 고려할 수 있다. 필자도 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기고 있는데, 매월 첫 주 주일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리듬이 주도적인 곡이나, 현대적인 화성 진행이 주가 되는 곡을 선곡하여 찬양을 드린다. 예배에 함께한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들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곡을 하고 있다. 젊은 층은 창을 성가대로 끌기 위해 지휘자는 젊은 세대의 취향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떤 찬양을 주로 듣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 늘 새로운 시대의 음악에 노출되어 뒤처지지 않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유연한 연습과 현대 기술 사용

현대 생활의 요구를 이해하여, 유연한 연습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젊은 층은 바

쁜 직장 및 학업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모두가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연습시간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리 성가대는 다른 중소교회에 비해 비교적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은 편이다. 가끔 이들은 친정 혹은 처가 등 의 집안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예배는 드리더라도 오후 연습에는 출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연습에 참여 못 하는 성가대원들을 위해, 우리 성가대는 연습시간 실황을 녹음한다. 연습하는 곡마다 따로 녹음하여 성가대 단체대화방에 음성파일을 공유하고, 각 파트에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따로 파트 녹음을 하여 파트방에 올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중에 연습을 따로 할 수 있고, 고정된 연습시간에 부득이하게 참여 못 할 시에 받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덜 수 있다.

4. 지휘자와 청년 및 젊은 성도들 간의 유대관계 구축

성가대 내에 젊은 층이 더 많아지길 원한다면 지휘자가 젊은 층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과의 신뢰와 협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모두 참석하였으며 결혼을 함과 동시에 바로 성가대에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겹치는 등의 이유로) 성가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교회의 큰 행사, 예술 등에 칸타타 등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자는 현재 선기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첫해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과 먼저 상의를 한 뒤 청년부 광고시간에 가서 칸타타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여하라고 따로 광고를 내었고, 다섯 명의 청년이 그에 함께 하였다. 그 후로 악기로, 또는 노래로 꾸준히 참여하는 청년이 생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친교를 나누었다.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모두 참석하였으며 결혼을 함과 동시에 바로 성가대에 이끌어 올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젊은 성도와 오랜 기간 동안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다면 자연스럽게 성가대로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성가대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지휘자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젊은 성도들을 성가대로 인도할 수 있다 믿는다. 청년들과 젊은 장년층이 환영 반을 환경과 음악에 대해 공유된 열정을 기반으로 그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음악과,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더 젊어지고 새로운 지향을 품어온다. 하나님을 친양하는 이 영광스런 여정에 모든 세대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김지연

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작곡과 박사학위를 받고,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을 2년간 공부하였다. 교회음악분야에서 작곡 및 지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오페스트라 편곡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 상명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음악이론과목을 가르치는 책임강사로 있으며, 예배음악웹매거진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음대에서 배우는 Music Theory(예술출판사)>의 저자이다.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롯데지주·구세군, '조손 가꿈' 사업 완공 기념식 성료

롯데지주와 구세군은 최근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농어촌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조손 가꿈' 사업의 완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손 가꿈'은 전국 농어촌 지역 조손가정 50가정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부모와 손자녀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주택 여행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년층과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조손가정의 복지 공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념식에는 롯데지주 박왕근 전무와

구세군 김일동 충서지방장관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가정에 현판을 전달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를 격려했다. 롯데지주 박왕근 전무는 "처음 진행된 이번 사업이 조손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롯데만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일동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 돋는 일은 구세군의 중요한 나눔 사업이다. 롯데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새 주거 지원을 받은 한 김이슬(가명) 아동은 "집이 깨끗하고 밝아져서 좋고, 새 책상도 생겨서 기쁘다. 따뜻한 옷과 예쁜 가방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웃음 지었다.

한편, 롯데지주와 구세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복지 공백을 지원하는 '채움'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이다. '채움' 사업은 신혼부부 대상 '생명 티움 키트'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생명 티움' 사업. 그리고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조손 가꿈' 사업으로 나



'조손 가꿈' 사업 완공 기념식 현장의 모습. ©구세군

뉘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있다.

노령구 기자

(사)디엠지 피스,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사)디엠지 피스(DMZ Peace)가 최근 신한대학교 믿음관 3층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장현일 상임이사(국회조찬기도회)의 사회로 2024년 결산 및 사업보고와 함께 2025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강성종 이사장(디엠지 피스, 신한대 총장)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과 냉전의 상징인 DMZ에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비전센터 설립을 위한 비전선포와 함께 문화와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평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2025년에는 DMZ가 이 땅에 살풀의 꽃을 피어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수 있는 평화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란다"며 "Dynamic MZ(DMZ) 축제(세계평화순

편지쓰기대회)를 통해 다음세대들에게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DMZ 포럼(심포지엄)을 신한대 인문도시사업단과의 협력으로 개최해 평화와 DMZ 생태계보호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DMZ 미래비전을 청년 및 시민 교육을 통해 확산하고 DMZ를 통한 평화운동을 위해 다양한 NGO 기관과 협력하기로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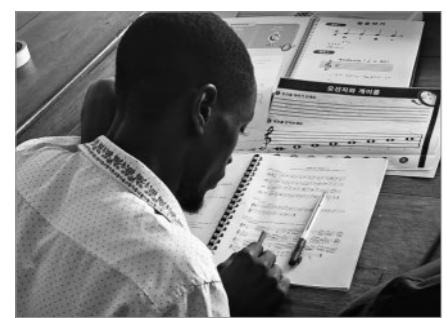
이날 총회와 이사회에서 이현주 사무총장이 2024-2025 수입자출 예결산 보고와 최에스더 다음세대위 원장이 2024년 장현일 상임이사(정책위원장)가 2025년 사업과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진영 기자



(사)디엠지 피스 제2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디엠지 피스

실로암인터내셔널, 탄자니아에서 음악 점자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



음악 점자 교육 현장 ©단체 측 제공

실로암인터내셔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2023-2025 탄자니아 시각장애학생 교육 접근성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탄자니아 점자교과서 제작을 위한 현지 음악 점자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음악 점자 교육은 탄자니아 점자교과서 제작을 위한 현지 점자

출판시설 점역사 및 교정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약보에 대한 이해부터 음악 점자로 접역하는 방법까지 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해 탄자니아의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교과서를 약보로 제작, 시각장애 학생들이 음악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2월 17일부터 18일에는 탄자니아 모로고로 지역 내 중등학교 3곳을 방문

하여 약 2,040명을 대상으로 장애, 비장애 학생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했다.

시각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실로암인터내셔널 최동의 부회장은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 장애를 딛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탄자니아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나래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조건회 목사의 친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을림(132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 박경수)	0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30 생명의 말씀-이강평 목사(예수사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신교의 땅 탄자니아를 기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 유선택) 30 말씀의 능력 (전태식)(520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82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신학(6회)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백윤현 목사(대전한빛교회) 50 생명의 말씀-이기웅 목사(영광제일교회)	20 말씀의 셀터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 50 말씀의 셀터 온누리바전교회 김동국 목사	30 빙하의 일각 - 야외수업	20 주만찬(29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96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경민 목사)
	8:00 20 신앙에세이 30 [생방송] 오늘의 정원	20 선교의 땅 가나를 가다 50 세인자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0 찬양예배 - 주님께 말기는 시간(1524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238회) - 사도행전 13강	0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9: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	00 [말씀] 충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모부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하소서(11254회) - 다니엘 김 목사 1부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특(60회) - 성경시대 법과 제도 3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10:00 10 위대한 발걸음 25 더 초준 [미리보기] 40 사인사색	30 말씀의 셀터 든든한교회 장향희 목사	2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00 CBS NEWS 10 20 훌리한 내짜(5회)	00 내 삶의 행복(145회) 5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113회)
	11:00 1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애	00 GOODTV 진리의 시간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30 비전설교 새문안교회 이상학 목사 50 GOODTV 정오의 기도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50 레알캠핑	20 성서 700 도시여행(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435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9강 왕들을 평가하다 (이합과 이세별)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50 복음강단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오후	12: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0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셀터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00 감신대 학요채풀(20회) 30 TV강단 (포이에마예수 신우인)	20 말씀의 창 (온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은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양병희 목사(영안교회) 30 박세특강	00 비전설교 중앙성결교회 한기재 목사 30 횡성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유풋원(611회)	30 비전메시지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 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074회) - 박세익 대표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02회)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3회)
	15:00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애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191회) - 창세기 48강	00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16:00 30 생명의 말씀-이재희 목사(분당횃불교회)	00 세계미가행 40 말씀의 셀터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1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20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7004/79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50 빛으로 소금으로	20 말씀의 셀터 평택성원교회 박승권 목사 50 성서의 땅 스파인을 가다	30 [말씀] 박신웅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5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본영)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7회)
	18:00 00 생명의 말씀-정영교 목사(산본양문교회) 30 말쓰노트 4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20 애베스의 기도 50 더 메시지	10 휴먼네컷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용인송전 기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 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 30 말씀의 창 (든든한교회 장향희 목사)
저녁	19:00 30 더 메시지 시즌2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창빛비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	00 이영훈 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547회) 30 TV강단 (용인비전 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현 목사)
	20:00 20 힐링송 30 생명의 말씀-김의철 목사(송도가나안교회)	00 힐링스토리 10 말씀의 셀터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휴먼디큐멘터리 시령은 강물처럼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창양해> -선한목자교회- 40 너답게-회복프로젝트	00 CBS 비전특강 -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칼럼 (인천제일 이재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39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화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20 휴먼디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50 GOODTV 뉴스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238회) - 사도행전 13강 50 살롱 쌀롱(35회)	1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110회)
	22:00 20 [드rama] 더 초준	10 예수 더 라이프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빙하의 일각 - 야외수업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254회) - 다니엘 김 목사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4회) 20 소문난 성경교실(432회) - 오택현 교수: 첫 번째 6강 왕들을 평가하다 (노보이 아들 여로보암의 징)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20회)
	23:00 20 위대한 발걸음 30 사인사색	00 리바이즈 헤리티지 1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 기도회	00 카일 아이들면의 로마서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예수를 만난 사람들(5회)	00 이석 목사의 일어나는 복음을 찾아서(109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말씀의 셀터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방주교회)	0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2회) 10 성서 700 도시여행(4회) 50 성경풀기 이것이 궁금하다(94회)	00 한소망교회 한별의 기도회(53회)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1:00 00 오늘의 정원 50 워킹온더바이블성경의 땅	10 말씀의 셀터 순복음중등학교 김경문 목사 40 GOODTV 시네마 마기복음 1부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온혜생물교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270회) 40 CBS 비전특강 -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THE 김이 궁금한 신앙, 물었던 이야기 성지면(9회)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GOODTV 특별간증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TV강단 (승리 박규성)	00 선교는 지금(2회)

DOOSAN

소형 건설물류 장비의 세계적인 이름 밥캣은 두산의 브랜드입니다

WE ARE DOOSAN



Bobcat